2NE1 새해 두번째 월드투어

metro
메트로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www.metrobusan.co.kr

다나카 오면 류현진 4선발?

대학생 47.3% "통일 필요없다"

대학생 2명 중 1명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는 지난 10월30일~11월 10일 전국 4년제 대학 113곳의 재학생 386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를 담은 "2013년 전국 대학생 실태백서"를 26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52.4%,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47.3%로 각각 조사됐다.

이통3사, 문 닫은 채 새해 여나

방통위 오늘 과다보조금 주도 사업자 제재 수위 결정
영업정지 14일 이상·과징금 1000억원대 넘을 가능성

야스쿠니 신사 참배 – 병 주고 약 준 아베

주먹까지 꽉 쥔 채 결연한 표정으로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가 굳은 표정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현직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이후 7년 만이다. <관련기사 2면> /도쿄=연합뉴스

손 흔들며 "기분 상하게 할 생각 없다"
참배를 마친 아베 총리가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참배 후 "한국인과 중국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말했다. /교도 연합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보조금 시장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27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과다 보조금 관련 시장조사를 통한 이통 3사의 과도한 경쟁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KT 단독 영업정지로 시장이 안정된 7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통위는 이번 시장조사에서 선별된 주도사업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할 계획이다. 앞서 KT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단독 영업정지를 받기도 했으며 올해 1월부터 3월 13일까지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의 순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기준 상향 조정 ▲신규 모집금지 운영기준 마련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 선별기준 마련 등 내용을 담은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과다 보조금으로 적발될 시 기존보다 과징금이 두 배 상향 조정되고, 최소 5일에서 최대 60일 영업정지(신규 모집 금지)가 이뤄진다.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는 ▲위반율 ▲위반 평균 보조금 ▲위반율이 높은 일수 ▲위반 평균 보조금이 높은 일수 ▲정책 준수까지 소요된 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난 7월 방통위가 KT에 단독 영업정지 7일, 이통 3사에 총 6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엔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에게 14일 영업정지, 과징금이 1000억원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에 주도 사업자로 선별돼 영업정지되는 이통사의 경우 설 연휴, 졸업, 입학 시즌과 맞물려 피해가 보다 클 전망이다.

이통 3사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 혼란은 경쟁사가 주도했다고 발뺌한다. 다만 지난 10월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보조금 경쟁과 관련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KT나 LG유플러스 둘 중 한 곳이 선별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KT나 LG유플러스 모두 경쟁사가 보조금 지급을 통한 출혈 경쟁을 먼저 시작해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장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들은 주도 사업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통 3사는 보조금으로 인한 출혈 경쟁 상황을 야기한 것이 이통사만의 책임은 아니라며 불만도 제기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보조금으로 인한 출혈 경쟁 상황이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에서 지급되는 단말기 장려금 영향도 크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제조사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단통법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맞으면서 연내 통과가 힘들어진 상황이다. <관련기사 6면>

한 이통사 관계자는 "사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시장 혼탁 상황이 이통사만의 책임은 아니다. 시장조사 기간 당시 하이마트나 이마트 등 양판점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4가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의 국회 통과도 연내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이통사만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태균기자 tyk1403@metroseoul.co.kr

"참배 소식 분노 느낀다"

정부, '아베 도발'에 비난 성명…한·일 관계 '메가톤급 악재'에 급랭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1주년이 되는 26일 오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전격 강행했다.

일본의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후 7년 만이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역사 문제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 등으로 대립해온 한·일, 중·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 후 "일본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희생한 영령에게 존숭(尊崇)의 뜻을 표했다"며 "중국, 한국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말했다.

日 공사 불러 항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과 관련해 26일 김규현(오른쪽) 외교부 1차관이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총리의 참배 소식이 전해지자 한·중·미 주변 국가들은 총력속에 일제히 비난 성명을 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베 총리의 참배 소식에 분노를 느낀다"며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부끄러운 과거사를 참회하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아베 총리의 몰역사적 행보에 대해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은 실시간 속보를 내보내며 "아베 총리가 주변국의 반대에도 야스쿠니를 참배했다"면서 "야스쿠니 신사는 14명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일본 각료와 의원들의 악명 높은 신사에 대한 반복된 방문은 일본의 야만적 침략으로 고통받은 한국과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봉합해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던 미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허송세월 국회' 세법개정안 또 뒷걸음질

정부가 지난 8월 '세수 확대와 공평 과세'라는 목표 하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뒷걸음질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이익단체나 지역구 '눈치 보기'로 일관하면서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은 정부안보다 후퇴하는 반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내년부터 축소(15→10%)하는 방안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세무사의 전자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인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없애겠다는 정부 대책도 세무업계 반발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고소득 작물재배 농가에 대한 소득세 부과, 종교인 소득 과세 등도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현행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에 적용되는 가업 상속세 공제를 '매출 30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정부안은 '매출 5000억원 이하'로 더욱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뉴타운)의 '출구전략'을 위해 건설사에 법인세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도 처리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김민준기자

'새출발' 복지부 소통이 필요해

기자 수첩

황채용
<헬스복지부 기자>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틀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부터 8일간 세종시 청사로의 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세종시 시대를 열었다.

복지부가 이달 초 장관으로 취임한 문형표 신임 장관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까지 꾸린 것이다.

복지부에서는 단순한 새 출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건의료계는 복지부의 새 출발에 무엇인가 기대를 걸고 희망을 보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물론 복지부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먼저 전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기대와 희망이다. 이들은 언제나 복지부에 '소통'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소통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원격의료, 영리병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 이들은 당면한 문제는 다르지만 복지부가 자신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안과 정책, 제도를 합리적으로 풀어주길 원하고 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보건의료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들어주길 바라는 것. 이런 요구는 언제나 보건의료계에서 먼저 있었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한 관계였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이제는 물리적인 거리마저 더욱 멀어졌다. 하지만 보건의료계는 언제나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올해 말 새로운 수장과 새로운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나는 복지부가 한 번은 마음을 열고 이들을 맞이해야 할 때다.

국민 45명 중 1명 암경험

평생 암걸릴 확률 36.9%

현재 우리나라 국민 45명 가운데 1명이 암에 걸린 적이 있거나 암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종 암은 조기 단계에 발견할 경우 대부분의 환자가 5년 이상 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26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가 공개한 '2011년도 암 발생률·생존율·유병률 통계'를 통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12년 1월 기준으로 '암 경험' 인구는 모두 109만7253명(여성 60만5748명, 남성 49만1505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전체 인구(2011년 기준 5011만1483명)와 비교하면 현재 국민 45명당 1명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암 치료 후 살아있는 것이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13명당 1명(남성 9명당 1명·여성 18명당 1명)이 암 경험자였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수명(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였다. 성별로는 남성(평균 수명 77세)의 5명 중 2명, 여성(84세)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은 암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됐다. 암 종류별로는 갑상선암·위암·대장암·유방암·폐암·간암 등의 순으로 암 경험자가 많았다.

/김민정기자 jmms@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찰스 다윈 비글호 항해 출발

1831년 12월 27일 영국 플리머스항에서 해군 측량선 비글호가 남미의 대륙해안 측량과 해역 탐사를 위해 출항한다. 여기에 22세의 젊은 박물학자 찰스 다윈이 타고 있었고 갈라파고스 제도 등을 5년간 항해하고 수집한 그는 '비글호 항해기'를 집필한다. 다윈은 이때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연구를 거듭해 인류의 발상을 뒤집을 진화론을 확립하고 세기적 저작인 '종의 기원'을 발표했다.

주말 내내 강추위 전국적으로 눈이 내린 26일 스카프를 머리에 덮은 한 시민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포근했던 날씨는 27일 오전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29일까지 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철도 노사 13일만에 극적 한자리에

'수서발 KTX 민영화' 견해차 실무교섭 재개 7시간째 난항

철도노조파업 18일째를 맞은 26일 오후 11시 현재 노사 갈등의 폭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시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열차 운행률은 4일째 70%에 머물러 연말연시 승객 불편과 물류난이 계속되고 있다.

코레일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코레일 사옥에서 회연혜 사장과 철도노조 실무자들이 실무교섭을 시작했다. 이날 실무교섭은 파업 후 지난 13일 첫 노사 실무교섭이 열린 이후 13일 만이다.

이날 실무교섭은 오후 11시 현재까지 이어졌지만 핵심 쟁점인 '수서발 KTX의 민영화'를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난항을 겪었다.

아직 멀었다 26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박태만(왼쪽)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최연혜(오른쪽) 코레일 사장이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 스님의 중재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강제 진입 과정에서 종적을 감췄던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잠적 5일째인 26일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문이 불거지면서 협상은 재자리 걸음을 걸었다.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열린 총파업 총력 결의대회에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조금 전 민주노총에 당당하게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급하게 민주노총 본부 건물 주변의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김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에 대한 신병 확보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보수대연합 회원 300여명은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은신 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노조 지도부 퇴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성원기자 ysw@metroseoul.co.kr

말 퍼레이드 보고 소망비행기 날리고

해맞이 부산축제' 31일부터 용두산공원·해운대서 열려

계사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는 겨울철 대표 테마축제 '2014 해맞이 부산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양일간 용두산공원, 해운대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2014 해맞이 부산축제'는 시민의 종 타종식(12월31일 오후 11시 용두산공원)과 갑오년 해맞이(내년 1월1일 오전 6시30분 해운대해수욕장)로 진행된다. 말 퍼레이드, 소망풍선 날리기, 새해 포토존,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염원 소망비행기 날리기 등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민의 종 타종식은 송년음악제, 타종식, 신년사, 용 승천 퍼포먼스, 희망불꽃, '부산찬가' 합창 순으로 실시된다. 송년음악제에서는 시립합창단, 여성합창중창단, 군악대, 관악연주단이 참가해 송년의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자정 정각에 펼쳐지는 타종식에서는 희망의 종 11회, 사랑의 종 11회, 평화의 종 11회, 총 33회 타종이 진행된다. 이어 허남식 부산 시장의 신년사와 새해를 축하하는 희망찬 용 승천 퍼포먼스 및 화려한 불꽃놀이가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2014년을 시작하는 갑오년 해맞이는 축하 공연, 새해 인사, 해맞이 감상, 말기 퍼레이드, 바다수영, 말 퍼레이드 순으로 진행된다. 일출 전에는 퓨전타악 퍼포먼스, 락밴드 등의 즐거운 공연에 이어 관람객들이 각자의 소망풍선을 하늘로 힘껏 날려보내는 시간을 가진다. 또 털기 축하 비행과 해맞이 바다수영 등 새해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말의 해를 기념해 부산경남경마공원과 협력, 말 퍼레이드와 말 포토존 등 이벤트가 마련된다. 말 10여 마리가 미포에서 출발해 해운대해수욕장 특설무대까지 해안을 따라 질주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또 해맞이 상징조형물을 배경으로 말 두 마리와 함께 사진 찍기, 말먹이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말 포토존은 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부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 염원 소망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가덕신공항 유치 소망을 담은 총 3만 개의 종이비행기를 용두산공원과 해운대해수욕장으로 날려 보내 하늘을 힘차게 수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해맞이부산축제는 부산은행의 도움을 받아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커피, 녹차 등 따뜻한 음료와 소망풍선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 밖에 해맞이 상징조형물 '나르샤'가 지난 22일부터 해운대해수욕장에 설치돼 내년 1월 2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2014년 해맞이부산축제는 대표적인 부산의 겨울테마축제로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과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에게 힘찬 기운 및 기쁨을 나누는 행사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정하균기자 hk@metroseoul.co.kr

구포 버스중앙차로제 시행 첫날 '혼란'

안내판 하나 없어 출근길 내내 2㎞ 정체

부산의 대표 정체 구간인 구포시장 앞 도로에 26일 버스중앙전용차로제가 시행됐지만 미흡한 홍보에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쳐 출근길 혼란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8시 북구 구포시장 인근 덕천사거리 일대는 평소보다 더 혼잡이 심어졌다.

덕천사거리 인근에서 부분적으로 막혔던 평소와 달리 출근시간 내내 도시철도 2호선 남산정역까지 2㎞가량 차량 정체가 이어지자 출근길 시민들은 저마다 분통을 터트렸다.

정체 원인은 북구가 이날부터 시행한 버스중앙차로제 때문.

북구는 도로 중간에 버스전용 왕복 2개 차로와 버스승강장 2곳을 설치, 버스와 일반 차량을 분리해 교통 흐름을 개선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구는 제도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중앙차로제를 강행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덕천사거리 주변으로 홍보 현수막이나 안내판 하나 찾아볼 수 없었고 버스나 택시 기사 역시 이날 시행한 버스중앙차로제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북구청 직원과 경찰, 모범운전자회가 현장 교통지도를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덕천사거리와 맞물린 1차로부터 구포시장 앞 도로 중앙 버스승강장까지 이어지는 100여 m 버스전용차로 구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보다 혼란을 부추겼다는 평가다.

/뉴시스

부산의 대표 정체 구간인 구포시장 앞 도로에 26일부터 버스중앙전용차로제가 시행됐지만 미흡한 홍보에 구조적인 문제까지 겹쳐 출근길 대혼란이 빚어졌다. /뉴시스

늘어나는 대기 화차 철도노조 파업 18일째인 26일 오전 부산역과 부산진역 사이 부산진역CY(컨테이너 야적장) 역 철로에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화차들이 텅 빈 상태로 멈춰서 있다. 파업 첫날인 지난 9일(왼쪽)의 모습에 비해 멈춰선 화차가 크게 늘었다. /뉴시스

지역 폐·공가 되레 늘었다

시 180억 예산 투입 불구 3년전보다 증가한 3940채

이웃집 미성년자 성폭행 살해사건인 김길태 사건(2010년 2월) 이후 도심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부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폐·공가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나섰지만 폐·공가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2010년 초 3456채(폐가 1259채, 공가 2197채)였던 부산지역 폐·공가는 부산시의 대대적인 해소 사업으로 2010년 말 3143채로 줄었다.

당시 부산시는 철거비용 등을 지원하는 등 예산지원사업을 통해 749채를 정비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현재 도심 폐·공가는 3940채로 2010년보다 되레 늘었다.

부산시가 2010년 749채를 시작으로 2011년 271채, 2012년 180채, 그리고 올해 460채를 정비했지만 신규 발생 폐·공가가 정비된 폐·공가 수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폐·공가 주위에 180억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부산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한 폐가 철거 정책은 수정, 강제명령과 같은 비예산 철거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4월 구축된 '폐가 관리 전산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폐가 건물주를 찾아 면담과 설득을 통한 자진 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폐가를 관리법 제8조와 제68조의 점검이행명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 안전조치명령 등 법에 근거한 강제명령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축지 마을 할머니들 자신의 삶 책으로 펴내

부산 노심 속 영세민이 모여 사는 동구 매축지 마을의 할머니들이 자신의 삶을 기록한 책을 출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식나눔공동체 '이마고'는 매축지 마을에서 40여 년을 산 할머니들이 쓴 '매축지 마을 할머니 이야기2' 출간기념회를 26일 열었다. 지난 1월 발간된 '매축지 마을 할머니 이야기'의 후속편이다.

책 속에는 20세에 경북 경산에서 이곳으로 시집와 살다가 화재로 집을 잃었던 김태식(86) 할머니부터 10대 중반 조방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렸던 복술이(77) 할머니의 삶까지 다양한 사연이 담겼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이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시간이 마련됐다.

책 출간에 앞서 할머니들은 닥종이 인형 제조법을 1년간 배웠다. 이야기 속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인형을 사진으로 찍어 책에 싣기 위해서다.

할머니들은 앞으로 그림책뿐 아니라 인형극 등으로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계획이다.

반값 전기료 운동본부 출범

부산 반값 전기료 추진시민운동본부'가 26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부산 연제구 체니스 뷔페에서 출범식을 겸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부산 반값 전기료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김영춘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용도 전 부산변호사회장,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 등이 공동대표를, 강용호 희망부산21 상임대표가 본부장을 맡았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지역별 순회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해 반값 전기료 여론을 확산하는 한편 기장군·해운대구 등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부터 지역별 운동 조직을 결성해나갈 방침이다. 또 온라인 서명운동,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울산·경북·전남 등 원전이 있는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수도료 고지서 이메일로

신년 시행

전국호환 교통카드 출시 · 급수중지 급수전 기본료 부과 안해

내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부산시·부산지역 교통카드사인 마이비가 전국 최초의 전국 호환 교통카드 '캐시비'를 출시한다.

이에 따라 1장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대중교통, 도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외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부산시의 10대 전략산업이 1월부터 해양 산업, 융합부품 소재 산업, 창조문화 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지식 인프라 서비스산업 등 5대 신전략산업으로 재편된다.

다음은 새해부터 부산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

▲전국 최초 전국 호환용 교통카드 보급 = 부산지역 교통카드 업체인 마이비가 새해 1월 전국 호환 교통카드 '캐시비'를 출시한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다른 교통카드 사용으로 다른 지역 대중교통 이용 시 해당 교통카드를 별도로 구입하거나 현금을 사용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과 대전지역은 내년 3월부터 캐시비 적용 지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부산 10대 전략산업 5대 신전략산업 전면 개편 = 부산시가 융복합 고령화, 글로벌화 등 국내외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창조경제의 신동력을 내세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월부터 부산시 10대 전략산업을 5대 신전략산업으로 전면 개편한다.

종전 해양, 기계부품 소재, 관광·컨벤션, 영상·IT, 금융, 고령 친화, 의료, 생활 소재, 디자인, 그린에너지 등 10가지 전략산업이 해양, 융합부품 소재, 창조문화, 바이오헬스, 지식 인프라서비스 등 5가지 전략산업으로 바뀐다.

부산시는 전략산업 개편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활용, 지역 혁신 역량 제고,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급수 중지 급수전 기본요금 미부과 =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장기 미사용 급수전의 급수 중지 신청을 유도해 계량기 동파와 누수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부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급수전에 대해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급수 중지 급수전에 대해 구경별로 정해진 기본요금(13㎜ 월 1200원, 20㎜ 월 2200원 등)을 부과했다.

▲공동주택 가구분할 제도 개선 =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공동주택 가구 분할과 관련, 3월부터 종전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등재 시 가구 수 인정'을 '사실상 거주 시 가구 수 인정'으로 변경해 적용한다.

이번 공동주택 가구분할 제도 개선은 가구 분할을 하지 않은 가구가 다수인 원룸 등의 경우 누진요금 적용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가구 분할을 하지 않은 직장인, 학생 등이 다수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 등의 가구분할 미적용에 따른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요금 전자고시제 시행 = 부산시 상수노시엽본부는 현행 종이 고지서로만 고지하던 수도요금을 대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e메일을 통해 고지하는 전자고시제를 1월부터 시행한다.

전자고시제 송달 시스템 운영으로 종이고지서 제작과 송달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고지서 분실과 분실 위험 해소 등 납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부경경마공원 2년연속 '교육 메세나탑' 수상 지난 24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교육메세나탑 수상식'에서 KRA 부산경남경마공원 김학신(사진) 본부장이 '힐링스쿨'의 운영 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기부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다.

더 젊어지고 세련된 '시원소주'

대선주조 18도짜리 '시원 블루' 내년 출시

부산 향토기업 BN그룹 대선주조는 26일 알코올 도수 18도짜리 중저도 소주인 '시원 블루'를 내년 1월 1일 공식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선주조는 부산·경남·울산지역 소비자의 다양한 소주 입맛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시원'(19도)과 '예'(16.7도) 소주의 중간 도수로 적당한 소주 맛을 내는 18도짜리 소주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시원 블루'는 100% 천연 암반수와 세계 최고가 감미료인 토마틴을 첨가해 깨끗하고 깔끔한 소주 맛을 유지하며, 소주업계 최초로 원적외선숙성 공법을 채택해 목 넘김이 부드러우면서도 감치는 맛을 내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명 시원 블루는 블루가 바다 도시 부산의 이미지에 부합하고 청량한 젊음을 상징하는 색깔로 '더 젊어진 시원' '더 젊고 세련된 시원소주의 탄생'을 의미한다.

대선주조가 내년에 출시할 '시원 블루' 소주의 홍보 포스터. '부산이 젊어진다'는 광고 카피로 더 세련되고 젊어진 신제품의 특징을 압축했다.

이에 따라 '부산이 젊어진다'를 광고 카피로 채택해 더 젊어지고 세련된 신제품의 특징을 압축했다.

대선주조는 신제품 개발에 따라 기존 시원, 예, 시원프리미엄을 포함해 모두 4가지 종류의 소주를 생산하게 됐다.

박진배 대선주조 대표이사는 "많은 소비자들이 시원과 예 소주의 중간 도수 제품을 원하는 사실을 시장조사 결과 확인하고 지난 6월부터 신제품 개발을 준비해 왔다"며 "그동안 비공개로 부산·경남·울산지역 소비자 3만여 명을 상대로 신제품 시음회를 가진 결과 18도짜리가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송학균기자 hks@metroseoul.co.kr

'해안 절경' 이기대에 바다 숲 생긴다

부산을 대표하는 해안 절경 중 한 곳인 남구 용호동 이기대 해역에 바다 숲이 조성된다.

부산시는 최근 열린 해양수산부의 '2014년 바다 숲 조성 사업 대상 해역 선정위원회'에서 이기대 해역이 사업지로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해졌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역 해역에 적합한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부산 연안을 살아있는 바다,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고자 바다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바다 숲 조성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모두 62㏊에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대기업 신입사원' 더 좁은문

51.9%만 내년 채용계획

취업 한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공기업을 제외한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29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9%(152개사)만이 대졸 신규 공채를 진행할 계획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에 응한 기업 가운데 18.8%(55개사)는 내년에 신입사원을 뽑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나머지 29.4%(86개사)는 아직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내년에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밝힌 152개 기업은 총 1만4378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신입사원 채용 규모(1만4545명)보다 1.1% 감소한 수치다. 한 기업당 평균 채용 규모도 올해(96명)보다 줄어 내년에는 95명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채용 규모가 늘어나는 곳은 정보통신(IT)(6.7%), 건설업(6.7%), 유통·무역업(2.9%), 전기·전자업(1.9%) 등이다. 반면 자동차업계의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11.1%나 줄어들 전망이다.

/이국명기자 kmlee@

기업들 "내년 경기 더 악화"

전경련·대한상의 전망지수 나란히 100 하회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시지표들이 완만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결정, 경기부진 지속에 따른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1월 종합경기 전망지는 93.4로 3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기업경기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문별로 내수(94.2), 수출(96.x), 투자(96.5), 자금 사정(96.9), 재고(105.6), 고용(98.6), 채산성(91.7)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기업경기실사지수 12월 실적치는 90.5를 기록해 9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25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내년 1분기 전망지가 92로 집계됐다. 지난 2분기 99를 기록하며 기준치인 100에 가까워진 이후 4분기 연속 90선대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애로요인으로 가장 많은 기업이 자금 사정(29.1%)을 꼽아 매출 부진으로 인해 자금 수급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환율 변동(21.4%), 미국·중국·유럽 경제 상황(20.8%), 원자재 조달 여건(20.2%) 등의 순이었다.

경기 회복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내년 하반기'(45.4%)와 '2015년 이후'(38.9%)라는 응답이 '내년 상반기'(14.5%)라는 답변을 크게 웃돌아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상고하저가 될 것이라는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하균기자 lotus119@metroseoul.co.kr

원터치로 즐기는 핫스팟 'T 테더링' 출시

'T테더링' 앱으로 핫스팟 즐겨요 SK텔레콤은 스마트폰을 PC와 연결해 모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테더링'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개인용 핫스팟 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T테더링'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직장인 연말 술자리 스케줄 주4회

1회 평균 6만6000원 지출

연말을 맞아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평균 4번이나 술자리에 참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7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말에 참석할 술자리는 일주일에 평균 3.7회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1~3회가 56.8%로 가장 많고, 4~6회(32.4%), 7~10회(6.9%), 10회 이상(3.9%) 순으로 나타났다.

연말 모임 종류는 회사 관련 모임이 41.2%로 가장 많았다. 학교 관련 모임(32.2%), 가족 모임(10.8%), 지역 모임(7.5%), 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SNS) 관련 모임(6.2%)이 뒤를 이었다.

술자리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1회 평균 6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3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직장인도 1.5%에 달했다.

/이국명기자

전국 최고가 상업용 건물 분당의 호반메트로큐브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로 분당의 호반메트로큐브가 급부상했다. 호반메트로큐브의 ㎡당 기준시가는 1964만9000원으로 평가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26일 고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의 고시 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0.38% 하락했고, 오피스텔은 0.91%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 가운데 이번에 처음 기준시가 책정 대상이 된 호반메트로큐브가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위였던 청평화시장은 ㎡당 1537만4000원으로 2위로 내려앉았다.

/유현희기자 maru@

노후엔 병원 갈 일도 많은데 사망보장뿐이라고?

노후보험은 사망보장은 물론
노후에 보장받는 내용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명품부모님보험

똑똑한 실버시대를 위한 똑똑한 보장!
치매도, 입원비도, 사망보장도! 노년 3대 보장을 하나로!

치매간병비Ⅱ(중증치매) 3천만원(최초 1회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상해 · 질병 입원일당
상해 입원일당(180일 한도 / 일당 2만원)
질병 입원일당(180일 한도 / 일당 2만원)

상해 · 질병 사망보험금 1천만원
상해사고로 사망시 지급
질병사망 또는 약관에 정한 지급률 80% 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1천만원 한도 Active보장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1577-6427

암만 무서운줄 알았는데 중년 3대 큰병?

중년이 되면 암도 조심해야하지만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큰 병도 대비를 해야합니다

암보험 하나로 불안한 중년을 위한 똑똑한 보장!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3대 큰병을 하나로!

암진단비 2천만원(최초 1회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 최초 계약후 2년이전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금액의 50%만 지급(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 지급)

뇌졸중 진단비 2천만원(최초 1회한)
최초 계약후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금액의 50%만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2천만원(최초 1회한)
최초 계약후 2년미만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금액의 50%만 지급

골절 · 화상 진단 의료비용, 골절수술 의료비용 1천5백만원 한도
상해로 약관에 정한 골절 · 화상 진단 또는 골절수술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1577-6428

미소금융 성실상환땐 신용 가산점

내년 서민금융제도 개선

내년부터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 금융상품의 지원 기준이 통일돼 서민들이 혼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은 미소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에게 신용등급 가산점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의 지원 대상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같아진다. 이자율도 연 12%로 동일해진다.

금융위는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에게는 개인 신용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대상이 되려면 내년 1월 21일부터 신용조회 회사에서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 일수가 20일 이하면서 다른 업권 연체가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 1만9000여 명 가운데 600~1000명의 신용이 1등급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햇살론 은행도 개선한다. 햇살론 근로자 보증 비율은 내년 1월부터 90%로 기존보다 5%포인트 내려간다. 저축은행은 번기별로 햇살론 일의 출연금 납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원스톱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유현민기자 hjkim1@

'단통법' 결국 해 넘긴다

지난 24일 방통위 전체회의 취소 … 2월 임시국회 기대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연내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24일 예정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며 보조금 규제 대상을 이동통신사에서 제조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과 유료방송 점유율 일원화와 관련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개선법 등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당초 23일 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방송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과 '해직언론인 특별법' 상정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반발한 여당 의원들의 거부로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법안을 심사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결국 산회되며 우려를 자아냈다. 24일까지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예정된 전체회의가 취소되어 미방위에 계류 중인 핵심 법안들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단통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책을 추진 중인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당혹함을 토로했다.

그동안 미래부는 단통법 통과를 위해 삼성전자 등 제조사, 이동사, 휴대전화 대리점 및 판매점 등 다양한 업계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미래부는 단통법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내비친 삼성전자와 꾸준한 만남을 통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 단통법 수정안을 마련해왔다.

유료방송 점유율 관련 규제 역시 마찬가지. 당초 케이블 TV와 IPTV, 위성방송 간 각각 다른 시장점유율을 일원화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동안 IPTV만 권역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위성방송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안이 통과되면 KT는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 전체 유료방송 점유율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하지만 법안 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KT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미래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온 노력이 국회 파행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최악의 경우 미래부가 단통법에 반대하고 있는 제조업계와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 막상 내년 2월 통과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metroseoul.co.kr

홈플러스 7만원대 폴더폰 출시 26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홈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플러스(Plus)폴더폰'을 선보이고 있다. Plus폴더폰은 폴더형 피처폰으로 바(Bar)형보다 사용이 편리하고 무게가 91g으로 가벼우며 부가세 포함 7만9000원이다. 200만 카메라 화소, 해상도 1500X1200, FM 라디오 기능 등 가격 대비 높은 사양을 갖췄다.

/홈플러스 제공

미분양 물량 3개월 연속 감소

전국 전량 6만3709가구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7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가 26일 공개한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0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6만4433가구에 비해 724가구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월(3만6642가구) 대비 2339가구 감소한 3만4203가구로 파악됐다. 서울 66가구, 인천 80가구, 경기 251가구 등 신규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경기지역 기존 미분양이 크게 줄면서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지방은 10월 2만7891가구에 견줘 1615가구 증가한 2만9506가구로 집계됐다. 3091가구의 기존 미분양 주택이 소진됐으나 충남과 부산을 중심으로 4706가구의 미분양이 새로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에서 신규 미분양이 대규모로 발생했음에도 8.28대책 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물량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2만4941가구로 전월(2만6397가구)보다 1456가구 줄었다. 수도권에서 1121가구, 지방에서 335가구가 소진됐다.

이에 반해 85㎡ 이하 중소형은 한달 사이 732가구가 증가한 3만8768가구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 1218가구가 줄었지만 지방에서 1950가구가 늘었다.

한편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 대비 1079가구 빠진 2만2227가구로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08년 5월(2만1757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량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옥기자 ...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시련의 연속'

되돌아본 2013 제약업계

정부의 '2020년 세계 7대 제약 강국 도약' 선언, 국산 신약 20호 종근당의 듀비에정, 셀트리온의 '램시마' 유럽 진출 등 올해 제약업계는 지난해 일괄 약가 인하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과 기대를 만났다. 하지만 잇따른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두 얼굴을 가진 정부의 약가 정책으로 제약업계의 숨통은 더욱 조여졌다. 다시 날고 싶었지만 결코 날 수 없었던 제약업계의 2013년을 돌아봤다.

◆비상 할 날 없던 제약업계

2013년 초 제약업계의 이목은 당시 청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쏠렸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청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처'로 격상된 것. 불량식품 근절과 함께 의약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면서 제약업계는 식약처 승격을 조심스럽게 반기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처 승격은 첫해부터 사고의 연속이었다. 타이레놀, 웨일즈제약 사태 등 의약품 안전 관리 체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내년도 최우선 과제를 스스로 떠안게 됐다.

또 제약업계는 올해도 리베이트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연초부터 잇따라 적발된 리베이트 사건으로 충격을 주더니 동아제약과 의료계가 리베이트로 인한 갈등 국면을 맞았다. 더욱이 지난 10월에는 대웅제약이 정부의 리베이트 합동수사반에 덜미를 잡히며 압수수색을 당해 '제약업계=리베이트'라는 꼬리표를 올해도 떼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올해 제약업계는 도매업계와도 충돌했다. 유통 마진을 놓고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갈등이 깊어졌는데 특히 도매협회에 마진을 최대 6.5%까지 주겠다고 맞선 한독과 도매업계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독과 도매협회는 일단 8.3%로 합의했지만 내년에도 유통 마진으로 인한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의 시련은 연말까지 이어졌다.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으로 논란이 빚어진 사건이다. 지난해 일괄 약가 인하로 제도 시행이 2년간 유예됐고 문형표 신임 복지부 장관도 한국제약협회를 방문해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 장관이 제도 재시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일괄 사퇴라는 비장의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외에도 정부가 사용량 약가연동제 등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해 제약업계를 놀라게 했으며 지난 4월에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자신의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해 회사를 해외 제약사에 매각하겠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또 제약업계에 큰 업적을 남긴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이 별세했다는 비보가 전해지기도 했다.

◆내년에는 날개를 펼 수 있을까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많았지만 제약업계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우선 앞서 말한 대로 정부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다. 세계 7대 제약 강국을 표방하며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이 그 주안점으로 제약업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 방안을 발표한 만큼 내년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 상위 제약사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괄 약가 인하 이후 반 토막 났던 영업이익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더욱이 지난 3월에는 동아제약, 10월에는 종근당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마쳤다. 또 내년 초에는 일동제약까지 지주회사로 전환돼 총 7개의 제약사가 지주회사 시대를 열고 해외 진출과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근당의 당뇨병 치료제 듀비에정이 토종 신약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지난 6월 유럽의약품청(EMA)의 허가를 받음에 따라 유럽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약품의 역류성식도염 치료제 '에소메졸'도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렇듯 제약업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고 날기 위한 날갯짓을 이어가고 있다. 2014년에는 제약업계가 날아오를 수 있을지 기대된다.

/황재용기자 hsau38@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예쁜 아기 포토 콘테스트

●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인판릭스-IPV 공보백신의 새 홍보대사를 뽑는 '제2회 예쁜 아기 포토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콘테스트에는 전국 170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으며 1차 예선을 통과한 아기들은 내년 1월 진행 예정인 본선 심사를 거쳐 백신 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인판릭스-IPV 공보백신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등 총 4가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다.

북아시아 IT이사에 소수진

● **한국다케다제약**은 최근 소수진 재무·정보기술 부서 IT 매니저가 북아시아 소속의 정보 시스템 및 IT 프로젝트 담당 이사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소수진 이사는 2011년 4월 설립된 한국다케다제약의 창립 멤버로서 사내 IT 인프라 구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PM), 고객관리관계(CRM) 구축 프로젝트 등 다양한 경영 정보 시스템 관련 업무를 완수했다.

오남용 없는 복용법 알린 '아는 것이 약'

시크릿 노트

한국존슨앤드존슨 캠페인

2013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기다. 제약업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찬찬히 돌아보면서 문득 '착한' 일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약사들이 할 수 있는 착한 사회공헌활동, 착한 연구 개발(R&D), 착한 해외 진출 등을 보면 상당히 많은 착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중 기억에 남는 착한 활동이 있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진행한 착한 캠페인 '아는 것이 약입니다'다.

사실 ▲모든 약을 식사 후 30분을 기다린 후 먹어야 하나? ▲감기약을 오렌지주스와 같은 음료수와 함께 먹으면 더 효과가 있을까? ▲진통제를 반으로 쪼개 먹어도 될까? 등의 질문에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여기에서는 이렇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있어 판단을 흐리게 할 뿐이다.

이에 가장 많이 복용되는 진통제 중 하나인 '타이레놀'을 생산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진통제를 포함해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을 복용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알리고자 이처럼 착한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더욱이 이런 활동을 지난 2010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니 착하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이 진행한 '아는 것이 약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약 복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존슨앤드존슨은 올해 참 착한 일 하나를 캠페인에 추가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서울 시내 여고를 방문하며 '아는 것이 약'이라는 청소년 약 복용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청소년 성(性) 건강 교육 프로그램인 '이름다음' 사업을 전개했는데 올해는 한국존슨앤드존슨과 손잡고 청소년을 위한 약 복용 교육 강연을 추가한 것. 생리통 진통제와 같은 일반약 복용이 잦은 여학생의 안전한 약 복용을 돕고 청소년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이미 상반기에만 34개 학교 1만600여 명의 학생이 클래스에 참여했고 하반기에는 11곳 5500명의 학생이 올바른 약 복용법을 배웠다. 내년에는 여중생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니 교육 성과도 제법 훌륭한 셈이다. 교육 내용이 궁금해 직접 찾아간 기자도 놀랄 정도로 재밌고 알찬 내용을 자랑하고 있을 정도로 말이다.

착한 캠페인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났고 올해 또 하나의 착한 활동을 추가한 캠페인의 내년이 더욱 기대된다. /황재용기자

'깨알 설명서' 읽기 편해진다

의약품 표시규정 개정고시

많은 사람들이 상비약으로 여기며 각종 증상에 여과 없이 즐겨 복용하는 약품 가운데 바이엘제약의 아스피린이 있다. 하지만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진 사용설명서는 일반인들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 게다가 용도나 복용법, 부작용 등은 전문 용어가 즐비해 복용자들은 그저 상식선에서 약을 먹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때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요약해 기재토록 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2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반의약품의 외부 포장에 전문 용어로 작게 기재된 의약품의 용도·복용법·부작용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장해 소비자가 좀 더 쉽게 의약품 허가 사항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등 9개 성분의 요약기재안을 별도로 마련해 이미 의약품 제조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요약돼 있는 의약품 허가 사항의 전체 내용은 제품에 동봉된 첨부문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 이지드럭(ezdrug.mfds.go.kr) 또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 허가 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읽기 편하도록 외부 포장 기재를 개선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현철기자

market index <26일>

코스피	코스닥
1992.30 (-2.29)	488.57 (-2.21)

금리	환율
2.88 (-0.01)	1059.00 (+0.50)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600만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 한도를 일제히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200만~300만원에 불과하던 체크카드 1일 한도가 최대 두 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지난 11월 체크카드 사용액이 8조49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체크카드 발급량이 9600만 장에 달할 정도로 체크카드 시장이 급속히 성장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 600만원까지 1일 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채신화기자

뉴스 & 뉴스

봄동-달래도 '겨울 밥도둑'

26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달래, 봄동, 봄나물, 유채, 냉이 등 봄채소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소비자심리지수 107

● 소비자심리지수(CSI)가 12월에도 기준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 자료에 따르면 CSI는 11월과 같은 107로 조사됐다. CSI는 100 이상이면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많다는 뜻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를 뜻한다. /김현정기자

개인금융자산 보험·연금 ↑

● 올해도 개인들의 금융자산에서 주식·채권의 비중은 줄고 보험·연금은 증가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경제 주체 부문별 금융자산 현황에서 개인 부문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2586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식·채권(649조원)의 비중은 25.1%로 2007년 34.1%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 중이다. 반면 올해 9월 말 보험·연금(740조원)의 비중은 28.6%로 전년 말보다 1.2%포인트 늘어났다. /김현정기자

국내주식형펀드 5조 이탈

●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연초 이후 국내외 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에서 총 9조2116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국내 주식형 펀드(4조9556억원), 대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일반주식펀드(4조4125억원), 테마주식펀드(1조5091억원),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K200인덱스펀드(6929억원)를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나타났다. /김현정기자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2가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 대표 임균보 / 사장·편집인 김광학 / 편집국장 조민호 / 부산지사장 직대 김유준 / 서울광고문의 02)721-9831 3 / 부산광고문의 051)553-2100 / 독자센터 02)721-9863

"회사 망해도 전액 상환"에 속았다

동양CP 수습 어디까지

금감원 2만 건 전수조사…불완전판매 확인땐 배상비율 판례상 20~25%

동양 사태가 발생한 지 석 달여 지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동양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판매에서 불완전판매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동양그룹의 불완전판매 검사와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5일까지 1만9904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신청 건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지금까지 일부 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인력 중 176명이 관련 검사·조사·감리 업무에 투입된 상황이다. 관련 혐의에 대해 분쟁 조정 신청 접수, 관련 서류 검토, 녹취파일 확인 등 3분의 1가량 조사가 진척됐다.

금감원 측은 "연말까지 조사를 약 42~45%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까지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실무 판단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확보한 증빙자료와 체크 사항에 대한 동양증권 담당 직원의 소명을 받고, 사실 확인을 거치는 절차 등이 남아있다.

금감원이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상품 위험 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동양 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 등급임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고위험 상품을 안정형 상품으로 안내하기 등이다.

또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재무 금전신탁 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기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불완전판매의 투자자 배상 비율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을 통해 개별 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의 배상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오는 5월 등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원 판결을 보면 피해자 배상 비율은 대체로 20~25%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금감원이 같은 상품 재투자자를 불완전판매 권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했다. 금감원 측은 이에 대해 "재투자율이 60%가 넘는 등 꽤 많은 피해자들이 재투자로 분류된다"며 "심도 깊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불완전판매 여부가 입증 안 되는 경우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2016년 7월까지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이현진기자 hdpark@metroseoul.co.kr

리바트 혼수가구 사면 웨딩카 지원 26일 서울 논현동 리바트가구점에서 모델들이 웨딩카 지원 이벤트를 알리고 있다. 리바트는 내년 1월 한달간 혼수 가구 구매 고객들의 신청을 받아 10쌍의 커플에게 결혼식 당일 집에서부터 메이크업숍, 결혼식장, 공항까지 탈 수 있는 웨딩카를 지원해준다. /리바트 제공

우리금융 계열사 중 8곳 새 주인 품으로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우리금융이 해체 수순에 들어간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내년 초 우리은행과 합병 절차에 돌입한다. 14개 계열사 가운데 우투증권,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파이낸셜,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F&I, 우리자산운용 등 8개가 사라지는 것이다. 우투증권·생명보험·저축은행은 농협금융지주, 우리파이낸셜은 KB금융지주, 우리F&I는 대신증권, 우리자산운용은 키움증권으로 각각 새 주인이 정해졌다.

경남은행은 BS금융지주 또는 경은사랑컨소시엄으로, 광주은행은 JB금융지주 또는 신한금융지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후 남는 계열사는 우리은행을 비롯해 우리FIS, 우리프라이빗에퀴티(PE), 우리카드, 우리종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 6개뿐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주사 직원은 이미 180명에서 9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김현정기자

'통장 쪼개기'로 돈새는 빈틈 차단

전순이 경제학

새해엔 '재테크 5계명' 꼭!

내년에도 경제 기상도는 그리 밝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야 한다. 2014년 새해에는 '재테크 5계명'으로 알뜰한 전순이에 도전해보자.

우선 ①냉장고 문에 메모를 붙이는 이른바 '냉장고 금융'을 추천했다. 일단 새해에 마음먹은 재테크 최우선 과제를 고른 뒤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 문에 붙인다. 냉장고에 붙여 놓으면 기억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수 있어 효과적이다.

특히 ②빚 부담을 줄여야 한다. '빚이라면 머리 깟는 빚도 무섭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부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재테크 방법이다.

③목돈을 만드는 데는 역시 티끌 모아 태산인 저축이 최고다. 높은 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다. 돈을 은행에 저축하는 것 자체가 소비를 줄이고, 돈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와 함께 ④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체크카드보다는 '현금'을 써야 한다. 체크카드도 한도 안에선 신용카드처럼 소비 절제를 둔하게 만들 수 있다. 현금을 사용하면 쓸데없는 곳에 돈 쓰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⑤'통장 쪼개기'는 필수다. 돈을 쓸 용도를 정하고,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급여 계좌부터 생활비 계좌, 비상금 계좌와 자녀 양육, 내집 마련, 노후 준비, 해외여행 등 목적에 따라 통장을 만들어보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그만큼 풍족한 노후를 즐길 수 있다.

/김민지기자

metro Russia

metro Brazil

Campinas lidera

올 들어 1만3136건 피해…독거미 공포 확산

브라질이 독거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파울루주 보건 당국에 따르면 가장 피해가 심각한 캄피나스시의 경우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706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소루카바시(247건)와 리우바리시(229건)가 뒤를 이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브라질에서는 거미에 물리는 사고가 1만3136건이 접수돼 지난해의 3628건보다 대폭 증가했다.

metro Canada

Les conservateurs devront légiférer sur la prostitution

새해 집창촌 매춘알선 관련법안 손질한다

2014년엔 캐나다 보수 정부가 매춘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최고법원은 지난 20일 집창촌의 매춘 알선에 대한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회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새로운 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으며 현재 매춘 알선 법안은 그 효력을 잃은 상태다. 매춘부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말띠 해엔 '말 요가' 어때요

러시아 여성들, 말과 함께하는 '시니 요가'에 열광…동물과 교감 통해 우울증 치료에도 도움

최근 러시아에서 말과 함께하는 '시니 요가' 열풍이 불고 있다.

시니 요가라는 명칭은 일명 '말 요가'의 창시자로 트레이너이자 무용감독인 이나 시니코바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시니코바는 "지난 23년간 요가를 하면서 종종 등에 통증이 느껴지고 정신적인 피로도 쌓였다"면서 "하지만 말과 함께하는 요가를 통해 더 큰 편안함을 느끼게 돼 시니 요가를 본격적으로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시니 요가는 칼로리 소비가 커서 다이어트 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소화불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다"며 "이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과 체중을 조절하려는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요가 수강생 울리야 세르노벡츠는 "나이가 들면서 생긴 만성 우울증을 극복하고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탈피하기 위해 시니 요가를 시작하게 됐다"며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삶의 활력이 생기고 동물과 하나 되는 자연의 에너지를 만끽하게 됐다"며 활짝 웃었다.

조각가이자 화가인 따찌야나 코마르추크는 "시니 요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완화시키는 데 최고"라며 "운동을 하고 나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말 위에서 하는 동작이 위험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시니코바는 "시니 요가는 매우 안전한 운동이라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니 요가에는 지구력이 좋고 온화하며 덩치가 크고 등이 넓어 말 위에서 쉽게 동작을 할 수 있는 페르슈롱 종이 이용된다"며 "말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푹신한 깔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련자는 안전하게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련자가 운동을 하는 동안 함께하는 말 역시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의 에너지를 수련자에게 전달한다"며 "이 덕분에 수련자는 온몸으로 산소를 마시며 운동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트로 러시아(기사 제공) 정리=조선미 기자

metro HongKong

교통법규 위반 벌금 폭탄에 자살·분신 속출

최근 중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서민들이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자 농약을 마시고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지난달 허난성에서 반년간 화물차 초과 적재로 벌금이 20만 위안(약 3500만원)이나 되자 어십 차주가 농약을 먹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지난 21일 허베이성 탕산(唐山)시에서는 삼륜차 기사가 휘발유를 뒤집어쓰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이날 오전 10시45분께 '억(億)'이라는 글자가 쓰여있는 전동삼륜차가 탕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탕산시 톈톈(天天)택배회사 소속인 기사가 몰던 삼륜차는 탕산시에서 운전이 금지된 모델이었다. 하지만 기사는 경찰 공무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며 벌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다 결국 경찰과 싸움이 붙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휘발유 등을 가져와 자신의 몸에 뿌린 후 자신과 차에 불을 붙였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달려와 저지하려 하자 기사는 경찰의 두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결국 경찰의 바지도 불에 타기 시작했다. 다른 경찰들과 행인들은 서둘러 소화기를 가져와 불길을 잡았다.

현재 화상을 입은 경찰과 기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사는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단속됐다. 우리한테 복수하기 위해 휘발유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네티즌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라더니 정책이 서민들이 자력 갱생할 수 없게 만든다"고 당국의 정책을 비난했다. /정리=조선미 기자

넥슨 'e스포츠 1위' 도전

국내 최초 전용 경기장 '넥슨 아레나' 개관…내일 '피파3' 첫 경기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이 e스포츠 1위에 도전한다. 28일 서울 서초동에 개관하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넥슨 아레나'가 출발선이다.

넥슨은 '피파온라인3' '서든어택'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 다양한 온라인게임으로 시장을 평정했지만 이러한 게임을 활용한 e스포츠 분야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게임사 최초로 전용 e스포츠 경기장을 확보하면서 향후 이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e스포츠는 여전히 가능성이 큰 분야다. '스타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롤)'와 같은 글로벌 히트 게임도 알고 보면 e스포츠 성공을 기반으로 했다.

즉 십중팔구 내수용이 아닌 국제용으로 키우려면 e스포츠 프로그램은 필수고, 이를 위해서는 자체 e스포츠 경기장 확보가 중요하다. '스타크래프트'나 '롤'을 봐도 국내에서는 곰TV의 경기장, 용산 e스포츠 경기장을 빌려 쓰고 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환경이 빠른 속도로 세계 각국에 구축되고 있어 특정 게임을 대상으로 한 e스포츠는 언제든 월드컵이나 올림픽처럼 글로벌 이벤트로 성장할 수 있다.

e스포츠 왕좌를 노리는 넥슨은 먼저 28일 오후 3시 '피파 온라인3 챔피언십 팀전' 8강을 이곳에서 시작하고, 이튿날인 29일에는 'SK텔레콤 스타크래프트 2 프로리그 2014 시즌' 개막전을 후속작으로 준비했다.

한편 넥슨 아레나의 등장으로 e스포츠를 중계하는 전문 방송사의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현재 곰TV와 온게임넷이 양분하고 있는 이 시장에 최근 개국한 스포TV가 가세한 상황에서 스타2 프로리그가 넥슨 아레나에서 스포TV의 중계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즉 곰TV 대 온게임넷, 곰TV스타디움 대 용산 e스포츠경기장의 대결 구도가 스포TV·넥슨 아레나의 가세로 다자간 경쟁으로 바뀌게 됐다.

넥슨 관계자는 "아레나 출범으로 아마추어리그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스포츠 저변 확대에 일조하겠다는 의지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에너지 서클 타고 원전 3D체험 한빛원전 내 홍보관이 원자력 발전 체험을 위한 첨빛체험관으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27일 개관한다. 이곳에는 관람객이 직접 3D 영상을 통해 발전소 내부를 탐험할 수 있는 '에너지 서클' 시설 등이 마련돼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빛원전 제공

포코팡 왕중왕 뽑는다

인기 모바일 퍼즐게임 '포코팡'의 고득점자를 가리는 왕중왕 대회를 연다.

26일 NHN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포코팡은 내년 1월 4일 경기도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CJ몰과 함께하는 포코챔스 2013 이벤트 명칭의 챔피언십'을 개최한다.

본선은 일대일 토너먼트로 3판 2선승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1등에게는 갤럭시 노트3와 결승전에서 기록한 자신의 점수에 해당하는 상금이 상품으로 제공된다. 300만 점을 기록하면 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는 셈이다.

2~3등에게는 갤럭시 노트3와 게임 내 아이템 구매수단인 다이아몬드 쿠폰과 과일 블루베리 한 박스, 4등에게는 다이아몬드 쿠폰과 블루베리 한 박스가 제공된다.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는 5만원 문화상품권과 체리 한 박스, 번외 경기 삼으로도 2명에게 갤럭시 노트3와 체리 블루베리 한 박스가 선물로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NHN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고 트리노드가 개발한 모바일 퍼즐게임 포코팡은 지난 10월 11일 출시된 이후 열흘만에 내려받기 200만 건을 기록하고, 구글플레이 전체 무료 앱 및 신규 무료 앱 1위와 앱스토어 전체 무료 앱 1위를 석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장충희기자

다크헌터 새 던전 이름은 '해피 뉴이어'

'다크헌터'가 올해 마지막 신규 콘텐츠를 선보였다.

쿤룬코리아는 모바일 액션 롤플레잉게임 '다크헌터'의 업데이트를 25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7월 출시된 다크헌터는 꾸준한 신규 콘텐츠와 캐릭터 업데이트를 벌이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용자의 아군이 돼 줄 '펫'과 신규 던전 '해피 뉴이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펫은 게임 속 캐릭터가 일정 레벨에 도달 시 무료로 제공된다. 'VIP3' 레벨 도달 시에는 '천마', 'VIP6'를 달성하면 황금사자 'VIP8'까지 가면 '희룡현계'를 지급한다. 지급된 펫은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해피 뉴이어 던전은 게임 레벨 40 이상 시에만 도전할 수 있다. 싱글 플레이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통과 시에는 경험치 혜택과 골드, 보석, 폭죽, 헌터 쿠폰 등 풍성한 새해 선물을 획득할 수 있다.

쿤룬코리아는 신규 업데이트를 기념해 내년 1월 7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헌터 쿠폰'을 100개 이상 모아 인증샷을 보낸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장충희기자

'테일즈위버' 므두셀라 1월9일 업데이트

'테일즈위버'가 겨울 업데이트 일정을 공개했다.

넥슨은 자사가 서비스하는 롤플레잉게임 테일즈위버의 새로운 챕터 등을 포함한 겨울 업데이트 주요 일정을 공개했다.

내년 1월 9일 업데이트 예정인 '므두셀라'는 지난여름 에피소드3 '공명 챕터1 오리진'의 다음 챕터로서 신규 필드와 던전, 퀘스트, 무기 등 대규모의 콘텐츠를 추가로 선보인다.

아울러 2월과 3월에 예정된 신규 캐릭터 '벤야'와 '별의전장' 업데이트 일정과 테일즈위버의 인기 캐릭터인 '벤야' '이솔렛' '이스핀' '티치엘' '아나이스' 등 8개 캐릭터 코스프레 사진과 메이킹 영상도 함께 공개한다.

한편 넥슨은 이용자 초청 콘서트 '온리유'를 내년 2월 15일에 개최한다. 콘서트 현장에서는 테일즈위버 OST 및 므두셀라 신규 음원 공개와 코스프레 행사가 펼쳐질 계획이다. 콘서트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onlyu.tales.nexon.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윤희기자 unique@

게임 '열혈강호' 담화린 뜬다

2005년부터 중국, 일본을 거쳐 미국에서도 서비스 중인 국내 대표 온라인게임 중 하나인 '열혈강호 온라인'의 여자 주인공이 180도 달라졌다.

게임 포털 엠게임은 26일 열혈강호 온라인에서 두 번째 원작 캐릭터 '담화린'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원작 만화 '열혈강호'의 여주인공인 '담화린'의 추가와 함께 신수 시스템 개편, 게임 내 경험치 조정 등 유저에게 새로운 재미 요소를 전달한다.

담화린 캐릭터는 지난 2월 첫선을 보인 '한비광' 캐릭터에 이어 두 번째로 추가된 원작 캐릭터로, 유저가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남녀 캐릭터로 등장한다. 또 원작 만화 속에 등장한 담화린의 무기인 '복마화령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몬스터 사냥 시 다양한 연계기와 원작에 등장하는 다양한 무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박성훈기자 zen@

설레는 도전을 시작합니다!

엄마, 나 러시앤캐시 합격했어
우리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얘기가 많지?
나도 잘 알아~
그래서 처음엔 망설였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구
은행이나 카드회사랑 하는 일은 비슷해
대신 이자가 비싼 만큼
훨씬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야
아직 신입사원이긴 하지만 다니보니까 좀 좋아지네?!
그래서 한 번 열심히 해보려구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능력 발휘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한
더 좋은 회사로 만들게요!

우리의 도전을 지켜봐 주세요!

‘두 바퀴 애마’도 추위 싫어

겨울 자전거 관리 요령

염화칼슘에 체인 손상
주기적 리스칠로 예방
실내보관시 부식 덜해

추운 날씨에도 '겨울 라이딩족'의 질주 본능은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하지만 추위 속에 무리하게 자전거를 타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잃거나 안전사고를 겪을 수 있다. 삼천리자전거가 겨울철 안전한 자전거 관리 팁을 제안했다.

체인은 청소를 소홀히 하면 이물질과 기름때가 끼어 주행 시 변속이 잘되지 않거나 체인 꼬임 현상이 일어난다. 특히 길에 뿌려진 염화칼슘에 닿으면 체인이 손상되기 쉬워 평소 그리스를 주기적으로 칠해줘야 한다. 라이딩 후에는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 스펀지로 닦아준 뒤 물기를 뺀다. 브레이크 역시 패드의 마모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때에 맞게 새것으로 교체한다.

겨울은 일찍 해가 지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자전거 뒷부분에 고강도 등을 달아 어두컴컴한 저녁에는 멀리서도 자전거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한다.

평소 자전거 보관 역시 중요하다. 칼바람이 부는 야외에서는 자전거가 얼거나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습하지 않은 실내에 보관하는 게 좋다. 또 타이어는 표면의 기름기가 증발해 갈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압을 40~50% 정도로 유지하고, 휠백이나 타이어 덮개를 덮어둔다.

이와 함께 변속기·브레이크 레버 등에 위치한 스프링이나 케이블이 당겨진 상태로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자전거를 안 탈 때는 풀어주는 것이 좋다. /이지현기자 ljh@

딱 기분좋은 온도에 덴다

핫팩·전기장판 인한 저온화상 주의…맨살 닿은 채 1시간 넘으면 위험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와 올겨울이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소식에 '핫팩'과 '전기장판'이 필수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저온 화상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표면보다 10도 이상 높은 열 전달

저온화상은 피부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온도인 40도 정도의 온도에 피부가 1시간 넘게 노출될 경우 발생하기 쉽다.

특히 핫팩이나 전기장판은 피부와 직접 접촉되기 때문에 피부가 받는 온도는 표면 온도보다 16도 이상 올라가게 된다. 이런 저온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핫팩과 전기장판 등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

핫팩에는 적당한 두께의 옷을, 전기장판에는 맨살이 닿지 않도록 잠옷이나 수건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음주 후에는 전기장판 위에서 잠드는 것을 피해야 한다.

◆화상 부위 수포 터트리지 말아야

만약 저온 화상을 입으면 진물로 화상 부위를 식히는데 어보다는 응급처치 후 신속하게 피부과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물집을 터뜨리지 않아야 한다.

화상 부위에 생긴 수포는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표피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또 화상을 입은 직후의 피부는 정상적인 피부에 비해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수분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시중에 나와있는 실리콘 시트나 반투과성 재생테이프 등을 붙이는 것이 좋다.

◆심한 흉터 남아 피부이식 하기도

저온 화상을 입으면 정상 피부와의 선명한 경계가 있는 화상 흉터가 남거나 피부를 이식해야 할 정도로 심한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외과적인 수술과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 외과적인 수술은 피부를 절개하거나 이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강진문 헨세스타피부과 원장은 "화상 흉터가 팔다리처럼 노출 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심리적 위축감을 가져오고 피부가 쪼그라들면서 단단히 뭉치는 구축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저온 화상이라도 전문의를 찾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재원기자 hoop@metroseoul.co.kr

새해 닷새만 맛보는 '행운버거' 한국맥도날드는 26일 오전 맥도날드 ○○동점에서 한정판 새해맞이 특별 버거인 '행운버거'와 '컬리 후라이'의 출시 행사를 열었다. 회사 측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월 5일까지 서울·대전, 대구·부산 등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과 인근 번화가에서 추첨 행사를 통해 순금과 골드클래스 영화 티켓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한국맥도날드 제공

조정래의 ‘정글만리’ 올해의 책

인터파크도서 '골든북' 발표

2013년 한 해 동안 국내 발행된 모든 책 중 독자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인 책은 조정래의 '정글만리'가, 최고의 작가에는 조정래가 각각 선정됐다.

인터파크도서는 26일 '제8회 인터파크 독자 선정 2013 골든북 어워즈' 수상 도서와 작가를 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 출간된 도서 중 판매량과 랭킹 가산점을 합산해 우선 작품 15편과 작가 10명을 골든북 후보로 선정한 후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독자들이 총 3만여 차례 투표에 참여해 최종 확정됐다.

최종 1위는 독자 5040표(18.7%)를 얻은 '정글만리'가 차지했다. 자본주의 정글 중국을 무대로 세계 각국의 주재원들이 펼치는 경제 전쟁을 그린 조정래씨의 소설로 국내 소설로서 5년 만에 100만부 판매를 넘어서며 밀리언셀러로 등극한 히트작이다. 뒤를 이어 법륜 스님의 '인생수업'이 3341표(12.4%)의 지지를 얻으며 2위에 올랐다. 3, 4, 5위는 김진명 작가의 '고구려 5'(9.6%), 정유정 작가의 '28'(7.3%), 유시민의 '어떻게 살 것인가'(7.1%)가 각각 차지했다.

조정래씨는 골든북 작가 부문에서도 27.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에 올라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골든북 작가 부문에서는 조정래에 이어 혜민, 법륜, 공지영, 베르나르 베르베르 순으로 다수의 표를 얻었다. /정연호기자 ○○○@

편해서 따뜻해서…미들부츠 전성시대

스프리스 '폴라' 판매량 3배
레스모아 판매순위 싹쓸이

본격 추위가 시작되면서 무릎 아래까지 오는 미들 부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보온성과 함께 캐주얼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 겨울 잇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스포츠 브랜드 스프리스가 올해 출시한 미들 패딩부츠 '폴라'는 10월 말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급성장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추가 물량 확보에 들어갔다. 슈즈 멀티숍 레스모아의 12월 부츠 판매 순위에서도 미들 사이즈의 패딩 부츠들이 1~5위를 휩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신발 브랜드 핏플랍의 '몰라 스니커 부츠'는 발목 부분을 접으면 레그워머로 활용할 수 있는 투인원 스타일이다. 스웨이드 가죽과 천연양털을 사용해 보온성이 뛰어나다. 4cm 히든 굽이 있어 키가 커 보이고 장시간 착용해도 발의 피로가 덜하다.

인조 퍼 안감이 돋보이는 크록스의 '모데사 스웨이드 부츠'는 족신한 구선감을 자랑한다. 신발 옆면에 버튼 장식이 있어 멋스러우며 루즈핏과 함께 스키니진·레깅스와 매치하면 한파 속에서도 따뜻하고 트렌디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pjw@

집밥 해먹이며 엄마처럼 봉사

테팔·휘슬러·락앤락 등 주방용품업체 소외아동·미혼모 돕기 훈훈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주방용품 업체들이 훈훈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후원을 넘어 소외 아동, 미혼모 돕기 등 기업의 가치관과 특색을 반영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가정용품 브랜드 테팔은 집밥을 통해 건강한 삶을 가꿔 나가자는 취지 아래 2010년부터 '테팔 집밥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

테팔은 이 캠페인을 사회공헌활동에 그대로 적용해 물품 후원, 쿠킹클래스, 바자회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의 손수 집밥을 해먹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특히 미래의 주인 어린이들을 위해 보육시설을 직접 찾아가 새 학기, 크리스마스 등 의미 있는 날에 다 같이 만든 집밥 요리를 나누며 멋진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 테팔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계층을 통해 집밥을 통한 따뜻한 소통을 이어가며 나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부터 구세군에 꾸준히 자선냄비를 후원해온 휘슬러코리아는 올해는 가종 10주년을 맞아 미혼모 자립 지원 프로그램인 '레드마마' 캠페인을 시작했다. 회사 측은 이 캠페인을 통해 미혼모 제능 발굴 프로그램부터 점포 리모델링, 마케팅, 고객 관리 등 비즈니스 멘토링에 이르기까지 미혼모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는다.

락앤락은 최근 소외아동 지원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개최하고 제품 8000여 점을 기증해 약 3000만원의 판매 수익금을 모았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락앤락 공식 대학생 서포터스가 참여해 나눔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락앤락 관계자는 "제품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전달하고 향후 지역사회 및 어려운 이웃과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테팔이 보육시설 어린이 위해 진행한 '찾아가는 쿠킹클래스' /테팔 제공

락앤락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바자회 /락앤락 제공

뉴스 & 뉴스

'자연은' 주스 인증샷 이벤트

● 웅진식품은 26일 꽃누나 김희애와 함께하는 '자연은' 인증샷 이벤트를 내년 2월 14일까지 벌인다.

이 이벤트는 웅진식품 공식 페이스북에 '자연은' 주스를 마시는 사진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사진 인터넷주소(URL)과 경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를 웅진식품 페이스북 이벤트창에 남기면 응모가 완료된다.

당첨자에게는 장희삼 발효홍삼 핵 순+홍삼봉밀절편, 자연은 주스 등 상품이 주어진다.

윤영달 회장 저서 'AQ- ' 출간

●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이 10여 년 동안 추진해온 아트 경영에 대한 경험과 철학을 담은 'AQ 예술지능(미래 기업의 성공 키워드)'을 펴냈다.

이 책에선 임직원들과 함께 예술과 경영에 대해 정립한 AQ(예술가적 지능지수)의 개념과 실천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IQ·EQ를 넘어선 AQ의 시대적 중요성, 예술로 표출되는 고객의 창조감성과 창조감성을 만족시키는 제품 2.0 전략 등 AQ 전략의 핵심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래오래 치킨먹고 슬러거 아이템 받자

농협목우촌(대표 성방덕)의 치킨 프랜차이즈 또래오래와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이기원)의 대표 온라인게임인 '슬러거'가 겨울방학을 맞아 공동으로 대규모 이벤트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슬러거와 함께 응모하라 또래오래 빅(BIG) 이벤트'로 이름 붙여진 이번 이벤트는 내년 1월 30일까지 또래오래 치킨 한 마리 이상 구매객에게 온라인 경품 응모권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최고급 노트북, 스마트 PC, 스마트밥, 농협목우촌 선물세트, 또래오래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응모자 전원에게는 슬러거 아이템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또래오래 홈페이지(www.toreore.com)를 확인하면 된다.

주문 안해도 배부른 식객

외식업계 연말연시 맞아 할인·경품 이벤트 와다닥

연말연시를 맞아 외식업계는 다양한 할인 혜택과 경품 이벤트를 앞다퉈 선보이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퓨전초밥 레스토랑 스시로는 다양한 이벤트와 파격적인 할인 혜택으로 연말 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 내년 1월 15일까지는 지인들에게 구폰 이미지를 찍어 선물하면 특선우동 한 그릇을 무료로 증정하는 '따뜻한 우동 한 그릇' 이벤트를 벌인다.

빕스는 자스민 폭립과 페퍼콘 암 스톤 등심 스테이크로 구성된 '베스트 세트', 2인 메뉴인 더블 리지 스트립 스테이크와 시즌 와인 2잔이 제공되는 '윈터 세트' 등 2종의 한정 세트메뉴 주문 시 빕스 머그컵 세트(2EA)를 증정한다.

미스터피자는 SK플래닛의 T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5일까지 결제 금액 30% 할인과 20% OK캐쉬백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더블 할인 & 더블 적립' 프로모션을 벌이고, 1월 26일까지 피자 맘마미아 주문 시 샐러드바(2인)와 탄산음료를 1000원에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프리미엄텐더 '요래요래' 구매객들에게 특별 한정 다이어리와 미니쿨백을 증정한다. 엔제리너스커피도 연말까지 영수증에 적힌 '영수증 응모번호 16자리'를 롯데닷컴 또는 롯데아이몰 홈페이지에 방문해 응모하면 순금 골드바, 엔제리너스 텀블러&머그세트, 카라멜마끼아또 쿠폰 등을 준다.

이 밖에 스쿨푸드는 27일까지 페이스북 이벤트를 통해 뮤지컬 맘마미아 R석 티켓, 대명리프트권, W뷰티박스, SPC이노베이션 상품권 등을, 죠스떡볶이는 겨울 한정 메뉴 '삼은세트'와 '사은세트' 구매객 중 추첨을 통해 총 393명에게 특급호텔 숙식권·여행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죠스 앤 스파이시 윈터' 이벤트를 내년 2월 말까지 연다.

/윤다혜기자 ymtss@

정 없이…초코파이값 20% 인상

오리온, 1월 생산분부터 적용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비롯해 6개 제품 가격을 평균 11.9%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초코파이는 4000원에서 4800원(20%), 후레쉬베리는 3000원에서 3200원(6.7%), 참붕어빵은 2500원에서 2700원(8%), 고소미는 1200원에서 1500원(25%)으로 조정된다.

또 미쯔블랙은 5.6%, 초코칩미니쿠키는 6.3% 인상 조정된다. 가격은 권장 소비자가 기준이며 오는 1월 생산분부터 순차적으로 소진될 예정이다.

초코파이는 2008년부터 4년 6개월 간 가격을 동결해 왔다.

오리온 관계자는 "원가 압박이 가중되고 있지만 가격 조정 품목을 최소화했다"며 "6개 품목을 제외한 50여 개 품목의 가격 인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용섭기자

라면시장 먹어살린 모디슈머

짜파구리·골빔면 인기에 '국물없는 라면' 전성기

농심 측이 26일 발표한 올해 라면 시장 키워드의 1순위로 모디슈머가 선정됐다. 모디슈머란 변경하다(Modify)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기존의 레시피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섞어 먹거나 새로운 조리법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는 새로운 소비 계층을 지칭하는 말로 대표적인 것이 '짜파구리'다. 이 메뉴가 지난 3월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후 농심 짜파게티는 전년 대비 26% 성장한 1260억원, 너구리도 지난해 대비 6% 성장한 약 970억원의 판매를 기록했다.

모디슈머들은 이후 비빔면에 골뱅이와 참치를 곁들인 이른바 '골빔면', '참빔면'에 이어 너구리와 떡볶이를 결합한 '너볶이', 오징어짬뽕과 짜파게티를 함께 끓인 '오파게티', 시원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조합한 '시원 짜파구리' 등의 콜라보레이션을 등장시켰다.

모디슈머 문화는 신세대들에게 '국물 없는 라면'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짜파게티는 라면 시장 2위 자리에 올라섰고, 이런 현상은 '비빔 용기면 시장'도 기파르게 성장시켜 올해는 약 8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성장했다.

/황재용기자

제가 사실 놀이기구도 잘 못타요 고난도 액션 척척…겁 없냐고요?

24일 개봉된 휴먼액션 영화 '용의자' 속 공유의 모습은 그저 놀랍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로맨틱가이의 이미지가 강했던 그는 이 영화에서 상남자 중의 상남자로 변신해 위험한 액션을 대역 없이 쉴 새 없이 펼친다. 공유는 "영화가 공개된 후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개고생했구나' 였다"면서 호탕하게 웃었다.

 # 교수형 직을 때 기절할 뻔…대역없이 카 체이싱도

'커피프린스 1호점' '김종욱 찾기' 등 주로 로맨틱물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공유는 이번 영화에서는 모두의 타깃이 된 채 자신의 가족을 죽인 자를 쫓는 북한 최정예 특수요원 지동철을 맡아 열연했다. 와이어 하나에 의지한 채 80m 높이의 절벽에 매달리고, 18m 높이의 한강대교에서 직접 뛰어내렸다. 차를 탄 채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위험한 카 액션 신까지 대역 없이 소화했다.

"사실 놀이기구도 잘 못 타서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러나 계속 위험한 액션들을 펼치다 보니 점점 무뎌지면서 지동철처럼 변해가서 겁 없이 재미있게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출연을 앞두고 회사도 저도 보장 금액이 센 보험은 많이 들었죠. 다행히 위험에 많이 노출된 것에 비하면 엄지 인대가 두 번 다쳤을 뿐 큰 부상이 없어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실감 나는 고난도 액션뿐 아니라 공유의 근육질 몸매도 볼거리다. 그는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드러내며 지동철의 처절함을 온몸으로 표현해냈다. 특히 지동철이 교수형에 처해졌지만 어깨를 탈골해 탈출하는 장면은 공유의 노력이 가장 엿보이는 신이다.

"사람들이 몸이 컴퓨터그래픽(CG)이냐고 물어보는데 절대 아니랍니다. 교수형 장면이 몸을 만드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단지 몸을 자랑하는 신이었으면 거부했을 텐데 그게 아니었기에 근육 움직임 하나하나 세심하게 전달해주고 싶었죠. 찍을 때 실제로 목을 더 조여달라고 요구했어요. 기도가 조여진 상태에서 찍어서 신이 끝날 때마다 기절할 뻔했죠."

영화 '용의자'서 상남자 변신 **공유**

北 최정예 특수요원 지동철 열연
한강대교 점프…절벽 매달리고
'본'시리즈 처럼 속편 나오길 바라

 # 개고생 촬영…어머니 영화 보고 마음 아파하시더라

몸을 만든 동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영화도 몸을 쓰고 싶어서도 다른 장르로의 도전을 위해서도 선택한 게 아니라고 했다. 외롭게 살아가다 유일한 위안이 된 가족을 잃은 남자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대표작들 때문에 로맨틱한 이미지가 심어졌지만 색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조급함은 없었어요. 군 제대 후 액션이나 스릴러 장르 영화 제의를 많이 받으면서도 하지 않은 건 그 때문이었죠. 이 영화는 어느 정도 책임감이 생기는 30대 중반이 된 제가 가족을 잃은 지동철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끌렸어요."

지금 공유에게도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라고 했다. 그는 "연예계에서 12~13년 일하면서 그만두고 싶거나 즐기지 못하는 순간이 많았다. 그때마다 존재감을 확인시켜준 건 가족이었다"면서 "영화를 마치고 보니 만약 자식이 있다면 지동철보다 더한 것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의 관람 후기를 전했다. "평소 제 영화가 개봉하면 가족이 흥행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돈을 내고 보는데 이번엔 많이 궁금한지 친척들까지 다 동원해 시사회로 먼저 봤어요. 보고 많이 안쓰러워하며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대견하지만 위험하니까 다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셨죠."

속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할리우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제작비와 열악한 환경에서 이 정도 수준의 영화를 만든 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감독님이 촬영할 때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힐 때 짓는 표정을 보면 같은 영화인으로서 마음이 짠했죠. 흥행이 잘돼서 할리우드의 '본' 시리즈처럼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이번보다 더 심한 고생을 하더라도 또 출연하고 싶어요."

/최신혜기자 사진/홍은미(세븐드림) 디자인/박은지

star bag

日 아레나 투어 22만 열광

샤이니가 두 번째 일본 아레나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6월 28일 사이타마 슈퍼아레나를 시작으로 오사카·니가타·홋카이도·고베·히로시마·후쿠오카·나고야·도쿄 등 9개 도시에서 15회 공연을 개최해 22만 관객을 동원했다. 24~25일 도쿄 요요기경기장 제1체육관에서 마지막 무대를 열고 2만 4000여 명을 동원했다.

'슈스케5' 멤버들과 공연

발라드의 신 이승철이 올해 마지막 무대인 31일 대구 공연에서 엠넷 '슈퍼스타K 5' 멤버들과 함께 노래한다.

이번 공연에는 톱 3에 올랐던 박재정·박시환·송희진을 비롯해 여성 3인조 그룹 위블리의 멤버 이기림이 참여한다. 또 이번 크리스마스 투어 '캐럴라인'에 게스트로 출연 중인 네이브로도 가세한다. 이승철이 '슈퍼스타K' 출신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8년만에 정규앨범 출시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8년 만의 정규앨범인 5집 '파이널리'를 26일 출시했다.

이번 앨범은 최상의 사운드를 담기 위해 6년이 넘는 제작 기간 동안 국내는 물론 독일 베를린, 체코 프라하,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주요 도시들을 오가며 만들었다. 총 3억원의 제작비를 쏟아부었다. 또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라하 시티 신포니에타 등이 참여했다.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6월

미성년자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37)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피해자 A양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고씨의 상고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두 아이돌 데뷔 10돌 감사무대

동방신기 '타임슬립' 공연 – "긴장 늦추지 않을 것"
JYJ 개별 활동 – "팬·멤버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시아 최고 아이돌 그룹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동방신기(유노윤호·최강창민, 사진 위)와 JYJ(김재중·박유천·김준수, 아래)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팬들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포부를 전했다.

2003년 12월 26일 SBS 특집 방송에 동방신기라는 이름으로 처음 얼굴을 알린 이들은 2010년 두 팀으로 갈라섰지만 각자 활발히 활동하며 국내외에서 최정상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동방신기는 10주년인 26일 새 앨범 발매 계획을 전했다. 내년 1월 6일 출시할 정규 7집 '텐스'는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매 무대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동방신기는 26~2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타임슬립'이라는 이름으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해 10주년을 자축한다. 이어 다음달 3일 KBS2 '뮤직뱅크', 4일 MBC '쇼! 음악중심', 5일 SBS '인기가요'에 차례로 출연하며 7집 활동에 들어간다.

영화·드라마·뮤지컬·콘서트 등으로 분주히 개별 활동을 벌이고 있는 JYJ는 이날 10주년 소감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겼다.

김준수는 트위터에 "10년간 함께 걸어와준 유천이와 재중이 형, 그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팬분들의 큰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함께 울어주고 웃어준 팬분들, 사랑하는 멤버들 고맙다. 정말"이라고 적었다.

이들은 10주년을 자축하고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펼친다. 메트로신문을 비롯한 6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했고, 서울 주요 7개 지역과 부산 2개 지역의 옥외 전광판에 광고를 내보냈다. 또 26~28일 서울 주요 지역에서 운행되는 버스에도 광고를 싣는다.

김준수는 30~31일 콘서트와 다음달 29일까지 뮤지컬 '디셈버' 공연, 박유천은 내년 2월 방송되는 SBS 드라마 '쓰리데이즈', 김재중은 다음달부터 전국투어에 나선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두번째 월드투어 나서는 2NE1

걸그룹 최초 – 내년 3월 스타트
9개국 13개 도시 – 서울서 포문

2NE1(사진)이 국내 걸그룹으로는 최초로 두 번째 월드투어에 나선다.

3월 1~2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시작되는 월드투어는 일본·중국 등 9개국 13개 도시에서 17회에 걸쳐 진행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번 투어의 타이틀과 콘셉트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해외 다른 여러 곳에서도 공연을 개최하고 싶다는 제안이 쇄도하고 있어 추가 공연이 열릴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2NE1은 올해 '폴링 인 러브' '두 유 러브 미' '그리워해요' 등 세 곡의 신곡으로 보다 넓어진 음악 스펙트럼과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줘 두 번째 월드투어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이들은 지난해 유명 공연기획사 라이브네이션과 함께 첫 월드투어 '뉴 에볼루션'을 펼친 바 있다. 이 공연은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012 베스트 콘서트'에도 꼽혔다. /유순호기자

'들국화' 다시 지다

재결성 1년만에 해체
고 주찬권 공백 때문

록그룹 들국화(사진)가 재결성 1년여 만에 해체를 결정했다.

26일 가요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원년 멤버인 전인권(보컬)과 최성원(베이스)은 각자 음악 활동을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7년 만의 새 앨범인 '들국화'를 발표했지만 10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주찬권(드럼)의 빈자리가 해체의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들국화는 1987년 일부 멤버가 대마초 파동에 휘말리며 1989년 공식 해체한 바 있고 이번이 두 번째 해체다. /유순호기자

나인뮤지스 데뷔 첫 연말시상식 선다

걸그룹 나인뮤지스(사진)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연말 시상식 무대에 선다.

최근 디지털 싱글 '글루' 활동을 마감한 나인뮤지스는 29일 열리는 SBS '가요대전'에 참가한다. 데뷔 4년 만에 처음 연말 시상식에 참석하는 나인뮤지스는 올 한 해 싱글 '돌스', 미니앨범 '와일드', 첫 정규앨범 '프리마돈나', 디지털 싱글 '글루' 등 총 4가지의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첫 정규앨범 발매를 기념하며 팬 250여 명과 소풍을 떠난 팬미팅 이벤트도 열었다.

/양성운기자 ysw@

www.imtcast.com
때론 달콤하게~
때론 상쾌하게~
때론 유쾌하게~
t나게 tv보자!
눈으로 즐기는 T-time tcast
FX
SCREEN
FOX
DRAMA cube
FASHION
CINEf
FOXlife
channel
t.cast
최강 컨텐츠 리딩 그룹!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 CINEf FX

김구라 "다른 멤버들은 예능 미개인"

'4남 1녀' 1월 3일 첫 방… 시골 어르신과 4박5일 생활 다뤄

MBC가 또다시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올해 '일밤-아빠! 어디가?', '일밤-진짜 사나이', '나 혼자 산다' 등 관찰 예능을 히트시킨 MBC가 새 예능 프로그램 '4남 1녀'를 내놨다.

이 프로그램은 남자 출연진 네 명과 여자 게스트 한 명이 가상 남매가 돼 시골에 사는 부모와 4박5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첫 회에는 김구라·김민종·서장훈·김재원·이하늬가 출연한다.

26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CGV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김구라는 "우리는 호흡이 안 맞는다. 다른 멤버들은 예능 미개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능 새싹이 될 것 같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또 김민종에 대해 "이 친구가 굉장히 순수하다"며 "시거담을 던딴 캐릭터다"고 말했다.

반면 김민종은 "김재원 별명이 '살인미소'이지 않으냐. 우리는 '보안 악마'에 사테고 가라는 별명을 지어줬다. 내가 얘기를 할 때마다 대들을 건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재원은 "김민종 형과 10년을 넘게 봤을 정도로 친하다. 그래서 부엌에 같이 있을 때가 많은데 음식을 너무 대충 만들더라"면서 "식구들이 먹는 것이라고 지적을 좀 했더니 그런 별명을 얹었다"고 해명했다.

첫 번째 여자 게스트 이하늬에 대해 김민종은 "이하늬가 도시적이고 새침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털털하고 성격이 정말 좋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내년 1월 3일 금요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장병호기자 yeah@metroseoul.co.kr

4남 1녀 제작발표회에서 방송인 김구라, 배우 김민종, 김재원, 전 농구선수 서장훈(왼쪽부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별그대' 시청률 1위 굳히기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가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수목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2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5일 방송된 '별그대' 3회는 전국 시청률 19.4%를 기록했다. 이는 19일 방송된 2회가 기록한 18.3%보다 1.1%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장태유 PD의 섬세한 연출력과 박지은 작가 특유의 익살스러운 대사, 카메오 출연자들의 인기력이 어우러지면서 '별그대'의 시청률 상승을 이끌고 있다. 25일 방송에서 김수현은 천송이(전지현)의 열혈 매니저로 이상을 시로잡았다. 복통을 호소하는 천송이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등 옆을 지키는 '자외남 (자기은 외계 남자)'의 이미지로 눈길을 끌었다.

또 전지현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나는 스타야… 나는 아시아의 별이야… 나는 국민여신… 병원 패션도 내가 일인자여야만 해…"라며 화장을 하고 킬힐을 신는 유난스러운 행동으로 웃음을 선사했다.

카메오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천송이의 라이벌로 등장한 유인영을 비롯해 휘경(박해진)의 상사로 출연한 유준상은 유머러스한 매력을 선보였다. 박정아는 선상 파티 결혼식을 올리는 톱스타로 등장했다. /장병호기자

'총리와 나' 세트장 고전+심플

제작비 8억원 들어

8억원 상당의 제작비가 투자된 KBS2 월화극 '총리와 나' 세트장(사진)이 공개됐다.

26일 제작진이 공개한 '총리와 나' 세트장은 총리공관을 비롯해 청사 스캔들 뉴스 사무실, 디정(윤아)의 집, 유식(이한위)의 요양원으로 구성됐다. 일산 킨텍스 측의 1개 라보 다른 세트장과 달리 에스컬레이터와 엘레베이터가 구비돼 있어 눈길을 끈다.

총리공관 세트장은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 심플한 소품들이 조화를 이뤄 한국적 아름다움과 세련미를 드러낸다. 큰 뼈대는 한옥의 구조를 살려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고 세트장 곳곳에 배치된 가구와 소품은 심플하고 고급스러워 대쪽 같은 권율(이범수)의 깔끔한 성격을 드러낸다.

또 전반적으로 따뜻한 느낌의 조명과 원목가구를 배치하는가 하면 침실에는 연두색 계열의 침구로 포인트를 줘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제작진은 "8억원 규모로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촬영 대부분이 이뤄지는 총리공관 세트장 제작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총리 공관의 규모 및 특수성, 권율과 어울리는 총리공관을 표현하기 위해 창틀부터 소품 선택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박세완기자

'SBS 연기대상' 수목극 주역 총출동 할까

'2013 SBS 연기대상'(이하 'SBS 연기대상')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올 한해 SBS 수목극에 출연한 배우 라인업이 유난히 화려했기 때문이다.

'SBS 연기대상'은 방송인 이휘재와 배우 이보영·김우빈의 진행으로 31일 오후 8시55분부터 방송된다.

올해 SBS 수목극은 톱스타의 출연과 함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2~4월 방송된 조인성·송혜교 주연의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시작으로 6~8월 이보영·이종석의 '너의 목소리가 들려', 8~10월 소지섭·공효진의 '주군의 태양', 10~12월 이민호·박신혜·김우빈의 '상속자들', 그리고 현재 방영 중인 전지현·김수현의 '별에서 온 그대'에 이르기까지 큰 화제를 낳았다.

현재 MC를 맡은 이보영과 김우빈은 참석을 확정 지은 상태다. 여기에 각각 드라마 속 주인공이었던 조인성·이종석·소지섭·공효진·이민호·박신혜 등 주인공들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드라마 주인공들은 SBS 연기대상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시청자가 직접 뽑는 인기상과 '베스트 커플상' 투표에도 후보로 올라있다. 유독 쟁쟁한 스타들이 많아 이들 중 누가 시청자의 선택을 받을지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김보영기자

유연석·박신혜 부부 입맞춤

사극 '상의원'서 왕·왕비 캐스팅… 내년 2월 촬영

대세 배우인 '응사'의 유연석(사진 왼쪽)과 '상속자들'의 박신혜(오른쪽)가 스크린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

이들은 내년 2월 촬영에 들어가는 사극 '상의원'(가제)에서 왕과 왕비로 각각 캐스팅됐다. tvN '응답하라 1994'에서 부드러운 로맨틱 감성으로 여심을 사로잡은 유연석과 '상속자들'로 차세대 퀸으로 퀸을 이어받은 박신혜가 차기작으로 선택한 작품이라 관심이 쏠린다.

'상의원'은 조선시대 실제 존재한 왕실의 의복을 만드는 기관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랑, 재능, 질투, 욕망을 그린다.

규율과 법도를 중시하는 어침장 돌석 역에는 한석규, 타고난 손재주와 탁월한 감각을 지닌 천재 공진 역은 고수가 맡았다. 김원엽는 모함과 암투로 가득한 전쟁 같은 궁궐에서 돌석과 공진의 옷으로 거대한 사건에 휘말리며 왕과 왕비는 변화를 겪게 된다.

이와 함께 궁궐 밖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소문이 자자한 공진을 처음 궁궐로 데려오는 판수 역에는 마동석이 캐스팅됐다.

올해 초 데뷔작 '남자사용설명서'로 뛰어난 연출력을 발휘하며 재기 발랄한 웰메이드 로맨틱 코미디를 선보였던 이원석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유순호기자 suno@

데쿠파즈 '청소년 연합 영화제' 내일 개최

대원외고 영화 동아리 데쿠파즈(DECOUPAGE)가 28일 오후 5시 대원외국어고 시청각실에서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연합 영화제'를 연다.

대원외국어고·대일외국어고·서울외국어고를 포함한 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등 10여 개의 고등학교가 참여할 예정으로 각 학교의 영화 동아리가 직접 제작한 다수의 영화가 일반 관객에게 공개된다.

이 영화제는 청소년들의 영상 예술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발굴할 기회일 뿐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사 기획, 제작, 관리 등 영화제 전반을 직접 기획하고 실현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올해를 시작으로 참여 학교가 매년 돌아가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날 행사에는 영화제 1부와 2부 시작 전에 청소년의 사랑을 받는 여러 유명 연예인들의 축하 영상이 별도로 준비된다.

심사위원은 각 참여 학교에서 선정된 100명의 청중평가단과 60명의 스태프, 휴먼인러브 등의 기관에서 초청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1·2부 영화 상영이 끝난 후 20분간 배부된 심사 표에 분야별 후보를 기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시상 부문에는 10여 개 작품 중 최고의 작품에 수여하는 글로리상과 함께 감독상, 작가상, 기관 및 단체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이 포함된다.

주최 측은 "처음 열리는 행사인 만큼 학생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기 위해 러닝타임이나 주제 등에 제약을 두지 않고 출품을 받은 만큼 청소년들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돋보이는 다양한 영화가 상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은선기자

봉준호·문병곤 감독 자랑스러운 영화인상

영화감독 봉준호(사진)와 문병곤이 자랑스러운 영화인상을 받는다.

한국영화배우협회는 올해 자랑스러운 코리아 영화인상 수상자로 봉 감독과 문 감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사람은 올해 한국 영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각인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봉 감독은 첫 해외 프로젝트인 '설국열차'로 국내에서 930만 관객을 동원하는 흥행을 거뒀을 뿐 아니라 도빌아메리칸영화제, 홍콩아시안영화제, 로마국제영화제 등 유수 영화제에 초청됐다. 베를린영화제 초청도 유력한 상황이다. 문 감독은 '세이프'로 칸 영화제 단편 부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하은선기자

만능검객 하지원… 주부검객 강예원… 터프검객 가인

'조선미녀삼총사' 곧 뜬다

MBC 월화사극 '기황후'로 안방극장을 장악한 하지원이 미녀들과 함세해 신년 극장가까지 접수한다.

하지원이 강예원·가인과 함께 미녀 삼총사로 나서 화제를 모으는 영화 '조선미녀삼총사'가 내년 1월 개봉을 확정하고 이색적인 예고편을 공개해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 영화는 빼어난 외모뿐 아니라 뛰어난 무공과 각양각색의 매력으로 무장한 조선 최고의 현상금 사냥꾼 삼총사가 조선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사건을 맡으며 벌어지는 일들을 유쾌하게 그린 사극 액션물이다.

출연하는 드라마와 영화마다 히트시킨 하지원이 외모와 실력, 비상한 머리까지 갖춘 만능 검객 진옥 역을 맡아 할리우드판 '미녀삼총사'의 리더였던 캐머런 디아즈 못지 않은 액션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예고편에서는 적들을 제압하는 무공을 펼치며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남장 연기로 화제를 모은 드라마 '다모', '기황후'에 이어 다시 한번 롯수염을 붙인 채 남장을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왼쪽부터 영화 '조선미녀삼총사' 예고편에 등장한 하지원·강예원·가인.

주부 검객 홍단 역을 맡은 강예원은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아랫로 기왓장을 깨부수는 등 억척스러운 캐릭터를 표현했다. 말보다 주먹이 먼저인 검객 가비 역의 가인은 터프한 매력을 뽐냈다.

이 밖에 예고편은 동양화풍의 애니메이션과 삼총사의 시누로 출연한 고창석의 맛깔나는 내레이션을 가미해 색다른 재미를 살렸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류현진, 3선발 비워줘!

미 칼럼니스트 "日 괴물 다나카 다저스 입단 땐 '한국괴물' 4선발로 밀릴 것"

일본의 괴물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25·라쿠텐 골든이글스·사진)가 한국인 메이저리거와 한솥밥을 먹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인 ESPN의 칼럼니스트 짐 보든은 26일 '다나카 영입이 유력한 5개 팀'이라는 제목으로 뉴욕 양키스, LA 다저스, LA 에인절스, 텍사스 레인저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꼽았다.

다저스에 대해 "이미 클레이턴 커쇼, 잭 그레인키, 류현진과 댄 해런으로 이어지는 선발 로테이션을 꾸렸지만 다나카가 그레인키와 류현진 사이에 들어간다면 완벽한 로테이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다저스로 올 경우 3선발을 맡고 류현진은 4선발로 밀려날 것이라고 전망됐다.

보든은 "커쇼가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나카와의 계약은 다저스에 보험이 될 수도 있다"며 "다저스가 강력한 투수를 한 명만 더 추가한다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워싱턴 내셔널스와 함께 내셔널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선발진을 갖출 것"이라고 다저스의 다나카 영입 가능성을 높이 내다봤다.

보든은 텍사스도 다나카 영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같은 일본 출신의 선발 투수 다르빗슈 유가 뛰고 있어 다나카 영입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르빗슈와 다나카로 국제적인 마케팅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텍사스가 추신수와 프린스 필더를 영입하기 위해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아메리칸리그의 다른 팀들처럼 선발 로테이션이 뛰어나지 않은 만큼 월드시리즈 진출을 위해 선발 투수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시작한 다나카의 포스팅 입찰은 내년 1월 24일 끝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추위 타는 세계여왕 여자 피겨스케이팅 김연아가 26일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2014 소치동계올림픽 선수단 교육 및 헌기 자격 서명식을 마친 뒤 챔피언하우스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기에 앞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목도리 매무새를 고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청용,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

손흥민·김신욱 뒤이어

볼턴 원더러스 이청용(26·볼튼 원더러스·사진)이 우리나라 축구 팬이 뽑은 올해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국내 팬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청용이 총 2776표 가운데 가장 많은 1369표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청용은 지난달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스위스와의 대표팀 친선경기에서 처음 주장 완장을 달아 2-1로 승부를 뒤집는 결승골을 넣어 승리를 이끌었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해트트릭과 멀티골을 연이어 넣은 손흥민(21·바이엘 레버쿠젠)은 810표로 2위, 올해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최우수선수(MVP)상을 받은 김신욱(25·울산 현대)은 302표로 3위를 차지했다. /정성욱기자

'15세 축구천재' 이승우 20세까지 바르셀로나서 뛴다

축구 천재 이승우(15·사진)가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와 장기 재계약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

내년 6월 계약 만료를 앞둔 이승우는 구단과 5년 재계약에 합의했으며 내년 2월 계약서에 사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잉글랜드의 첼시 FC와 맨체스터시티 FC 등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왔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은 5년간 50억원이라는 거액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승우는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팀 소속이던 2011년 FC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스페인 유소년 정규리그에서 경기당 1골 이상을 넣는 놀라운 골 득점력을 선보였고 각종 토너먼트에서도 개인상을 휩쓸며 단번에 유망주로 떠올랐다.

올 시즌 카데테B(14~15세 팀)에서 뛰어야 하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10월 후베닐B(16~18세 팀)로 월반했다. /유순호기자

한신 '오승환 캐릭터' 제작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에 입단한 '수호신' 오승환(31)의 캐릭터가 탄생한다.

한신은 오승환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인기 만화 '고르고13'의 작가 사이토 다카오와 협의 중이라고 현지 언론 스포츠호치가 26일 보도했다.

'고르고13'은 1968년부터 현재까지 연재되고 있는 일본 만화로 세계 제일의 암살자 듀크 도고가 세계 각국을 돌며 겪는 단편 에피소드 형태의 시리즈다.

한신 관계자는 "오승환에게는 '고르고13'과 같은 과묵한 분위기가 있다"며 "애칭은 등번호인 22를 따서 '고르고22'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욱기자

이재학 1억2500만원 계약

올해 프로야구 신인왕의 주인공인 NC 다이노스 투수 이재학(23)이 확실한 보답을 받았다.

NC는 이재학과 지난해 연봉(5000만원)보다 125%(7500만원)가 오른 1억2500만원에 2014시즌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재학은 2009년 신인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전체 10순위에 두산 베어스에 지명돼 프로 무대를 밟았다. 지난해 2군에서 남부리그 다승왕(15승 2패)을 차지하며 퓨처스리그를 평정한 뒤 올 시즌 1군 27경기에 등판해 10승5패, 평균자책점 2.88의 빼어난 성적을 거두며 정상급 투수로 발돋움했다. 이에 NC 투수 부문 고과 1위를 기록해 데뷔 첫 억대 연봉자 영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성욱기자

"막아도 소용없어" 29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러시앤캐시와 우리카드의 경기에서 러시앤캐시의 바로티가 스파이크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종 거포' 문성민 29일 코트 선다

5개월 재활훈련 순조 러시앤캐시전 첫 출격

국내 남자 프로배구의 간판 공격수 문성민(27·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사진)이 29일 올 시즌 처음으로 코트에 나선다.

김호철 현대캐피탈 감독은 26일 "문성민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날부터 교체 선수로 내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성민은 29일 러시앤캐시전부터 원 포인트 서버 또는 전위 공격수로 출전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문성민은 지난 6월 1일 월드리그 일본과의 경기에서 박어택을 때리고 착지하다가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를 다쳤다. 곧바로 수술을 받고 5개월 넘게 재활에 몰두해왔다. 일주일 전부터 레프트 공격수로서

볼을 때리는 훈련을 시작했다.

김 감독은 "믿을 만한 레프트 공격수가 없어 우리 팀이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그래도 2위를 달리고 있다"며 "문성민이 결정적인 순간 힘을 낼 수 있도록 그의 출전시간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성민의 컨디션이 100%에 올라올 때까지 무리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손가락을 다친 왼손 공격수 박철우의 이탈로 주춤한 선두 삼성화재 블루팡스를 따라잡을 기회일 수도 있지만 현재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시즌 막판 또는 포스트시즌에서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캐피탈은 그동안 임동규, 송준호, 박주형 등 세 선수를 돌아가며 레프트로 기용했다. 그러나 두 선수의 성공률이 높지 않아 용병 라이트 공격수 리버맨 아가메즈(콜롬비아·점유율 57.6%)에게 심하게 쏠리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3시즌 평균 25%의 점유율을 기록한 문성민이 제 컨디션을 되찾아 가세한다면 양 날개의 위력도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욱기자

프로농구 전적 (26일)

동부	25	19	21	24	89
오리온스	17	20	22	20	79
매니저판	6	12	12	6	36
삼성썬더스	16	11	11	12	50

프로배구 전적 (26일)

우리카드	0	3	러시앤캐시

'수원 팔경'의 그늘

권기봉의 도시산책 (82)

여행가이드북 '론리플래닛'은 작가들이 직접 가본 곳만을 다루는 데다 정부나 기업의 후원도 받지 않기에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될 점도 물론 있다.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론리플래닛의 작가 대부분이 영미권 사람들이라는 것이니, 즉 영어를 주 언어로 쓰는 이들의 시각에 기반해 그들이 궁금해하고 또 가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곳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비슷한 경우는 한국에도 있다. 지역마다 '단양팔경'이니 '관동팔경'이니 멋진 풍광을 꼭 짚어 가리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외부인의 시각에 의해 정해졌다는 것이다. '수원팔경'이 대표적이다.

수원팔경은 화성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가리키고 있다. 겨울철 광교산에 쌓인 흰 눈을 의미하는 '광교적설'과 팔달산 솔숲 사이로 부는 청량한 바람이라는 뜻의 '팔달청풍', 수원천 제방에 쭉 늘어서 있는 수양버들을 가리키는 '남제장류' 등이다.

한데 그것들은 애당초 지난 1913년 일본 대중가요 작사가인 후지노가 '일본인을 위한 조선철도여행 안내지'에 싣기 위해 선정한 것이었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의 정조 임금이 화성을 축조한 뒤 김홍도로 하여금 화성 주변의 여덟 가지 빼어난 풍광을 그려 바치게 한 것과는 단 한 가지만 일치할 뿐이다.

김홍도의 그림이 화성 축조와 관련이 있던 만큼 주로 백성의 삶이나 군사 부분에 관련돼 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의 수원팔경은 그저 유희의 공간으로서의 팔경일 뿐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수원팔경을 두고 식민지배자가 식민지를 대하는 시각이 투영돼 있는 증거라고 비판해도 항변할 여지가 없다.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지 25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도 일본 책들을 가져다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베껴 쓴 가이드북이 횡행하는 한국의 현실… 그런 이들의 한계를 말하기에 앞서 이 땅의 풍광을 바라보는 시각을 먼저 되돌아봐야 하는 현실이 못내 씁쓸하기만 하다. /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9	6		1	2	3	
	1		9		2		6	
		8	2	5	6	9		
2								6
		1	7	9	3	8		
	8		4		7		9	
	2	4	1		9	5	7	

			3			9		1
		3	9	8	4			
	6	9			2			3
		5				6		
		8	5				9	2
	2			4			7	
					9	1		4
	8		7		3		5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슈퍼스도쿠 맥스터
(재플의 미디어 리미티드 제휴)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tsa4(?).com

새해 유학·이직 심각하게 고민 직장 옮기면 연봉 반드시 깎여

말로학아리 여자 88년 1월 4일 오후 2시

Q 올 초 작은 어학사에 입사했습니다. 새해에는 영어권으로 유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학을 다녀오는 게 좋을지, 다른 업계로 가는 게 좋을지 불안하고 궁금해 상담 요청합니다.

A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다 됐는데 여직까지 공공기관 경영 공백이 계속되는 등 우리 경제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이런 기지라고 봅니다. 지금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게 되면 사주 면월(年月) 자오충으로 연봉이 깎이게 될 것입니다. 외국에 다녀오는 것은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나 지금 당장은 업무 향상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희지자를 기대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일지 인수(나를 돕는 기운)의 영향으로 노력도 잘하고 강하게 일어서는 힘도 있어 처음은 어려웠지만 결국 성공하는 사주입니다.

내년 운세·사주 어떨지 궁금해 편재운 강해 봄에 돈벌이 짭짤

특견사 남자 63년 9월 26일

Q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새해 운세와 사주를 알고 싶습니다.

A 보통 어려울 때일수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절실히 어렵다면 긍정의 힘이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날짜 전세 낼 돈도 없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겠으며 울분 있는 사람에게 무슨 해법이 있겠습니까. 독산고목(禿山孤木)으로 생일지(태어난 날) 주목(株木)이라 나무일이 잃어지는 2013년까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마음입니다. 2014년은 편재운(재물)에 강하므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먹이를 주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1~2월은 새 단장을 하게 될 것이며 3~4월은 재물과 합작이 됩니다. 5~6월에는 이주하는 운세라 귀하가 있는 곳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다면 구체적 방안이 설정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27일 (음 11월 25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 **48년생** 투자운 좋지 않으니 참조하라. **60년생** 과거에 집착하면 전진 못 한다. **72년생** 능력 밖의 일 욕심내지 마라. **84년생** 선배의 조언은 무조건 받아들여라.

소 — **49년생** 좋은 일로 지출이 늘어난다. **61년생** 실속 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73년생** 어려움 있으니 도우미 나타난다. **85년생** 지나친 자신감은 독이 된다.

호랑이 — **50년생** 중요한 일은 성사된다. **62년생** 움직일 여건이 형성된다. **74년생** 내키지 않으면 유익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라. **86년생** 해묵은 고민이 해결돼 기분 좋구나.

토끼 — **51년생** 뜻한 대로 거둔다. **63년생** 구설수 있으니 분수를 지켜라. **75년생** 그동안 헌 우물만 판 보람 이뤄내 느낀다. **87년생** 친사에게 칭찬 듣고 기분 좋은 하루.

용 — **52년생** 어려울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64년생** 짓찧던 은 무거운 짐 내려놓는다. **76년생** 사랑 문제는 주변에 조언 구하라. **88년생** 갖고 싶었던 물건 얻는다.

뱀 — **53년생** 기도한 일이 이뤄진다. **65년생** 큰일을 하려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77년생** 헤니를 주고 꿀을 얻는 격이다. **89년생** 공적인 자리에선 자존심 버려라.

말 — **42년생** 남을 도울 때 대가 바라지 마라. **54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된다. **66년생** 계획했던 일은 서둘러라. **78년생** 꿈 이룰 여건 형성되고 자신감도 넘친다.

양 — **43년생** 웃을 수는 없다. **55년생** 매매 성사시키려면 꾀수를 잘 활용하라. **67년생** 멀리서 반가운 벗이 찾아오니. **79년생** 술값에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조심.

원숭이 — **44년생** 배우자와의 여행이 즐겁구나. **56년생** 한 우물 파면 좋은 일이 생긴다. **68년생** 새 일을 하려면 지금 부족에 대비할 것. **80년생** 생각이 많아지면 리스크 크다.

닭 — **45년생** 자녀가 찾아와 기쁘게 한다. **57년생** 매매는 서두르지 않는 게 이익. **69년생** 자녀에게 고민이 생긴다. **81년생** 첫눈에 반하는 이성이 나타나 가슴이 뛴다.

개 — **46년생** 언덕이니 높은 곳 출입 삼가라. **58년생** 수입이 쏠쏠 지출할 곳 많다. **70년생** 매매 계약 시 문서 꼼꼼히 읽어봐라. **82년생** 상사와 충돌하면 손해만 본다.

돼지 — **47년생** 고목에 꽃이 핀 격이다. **59년생** 자녀 믿은 감정보다 지혜로 대처하라. **71년생** 기다리던 소식 안 들려 초조하다. **83년생** 친구 충고 무시하면 후회 자초.

NCSI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HAPPY SHAKE!
올 겨울이 처음처럼 부드러워집니다

흔들어 마시는
물이 좋은 소주
100%
처음처럼

HAPPY WATER

100%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